

한국십진분류표 000: 총류

2024년 <오늘의 도서관>에서는 책의 이름표이자 주소인
한국십진분류표에 맞춰 각 분야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달의 주제는 한국십진분류표 000, '총류'입니다.

백과사전, 신문, 전집 등 여러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
특정 주제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총류로 분류됩니다.



월간<오늘의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열다

04

도서관과 오늘
십진분류 총류의 의미
지식의 지식, 분류의 분류

08

주목! 이 도서
총류 분야 1위 도서《공부머리 독서법》
베스트셀러와 자기계발서에 대한 편견 지우기

10

도서관 산책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318호(2023년 12월호) '책 읽는 마음' 중 서명 오기가 있어 정정합니다.
: 《운동의 기쁨과 진실》⇨ 《운동의 진실과 기쁨》

오늘의
도서관

발행일 2024년 1월 31일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성훈, 배명희, 손효림, 이은경, 한숙희
편집 예은하 todays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23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P31 02-3141-2760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 1+2월호 카드뉴스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  블로그 <https://blog.naver.com/dibrary1004>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도서관을 만나다

14

사서 큐레이션
새해를 맞아 읽기 좋은 추천 도서

18

오늘의 만남
글자 밖에서 글씨를 구하다
서예가 이정화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지역 주민의 건강한 독서 습관을 함께하며
오래도록 역동하는 도서관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

26

보물을 찾아서
로마 철학자 키케로의 《국가론》과 바티칸 도서관

30

도서관 트렌드
뉴노멀 시대의 지속 가능한 도서관 서비스

서재를 걷다

34

문헌의 가치
미국인 부부의 기증 자료 재발견

38

문학상 읽기
슬픔과 고통,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목소리
루이즈 글릭의 《야생 붓꽃》

42

나를 바꾸는 독서
문유석 《판사유감》
판사의 마음, 법의 감정, 제도의 민주주의

46

숫자로 보는 테마 랭킹
다독을 결심하게 되는 1월, 어떤 책이 많이 대출됐을까?
'최근 3년간 1월 인기 도서 분석'

48

똑똑한 독서 생활
읽고 싶은 그 책, 어떻게 찾을까? 청구기호와 똑똑한 독서

함께 나누다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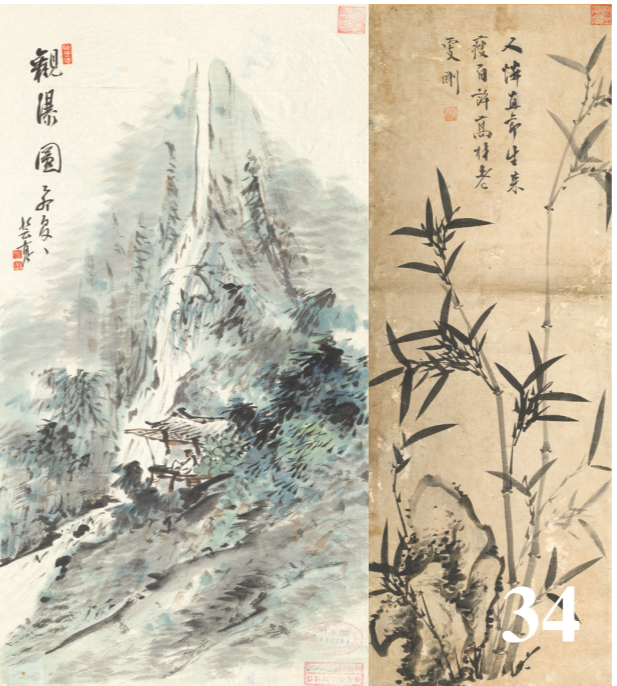
한 장의 감성



18



26



34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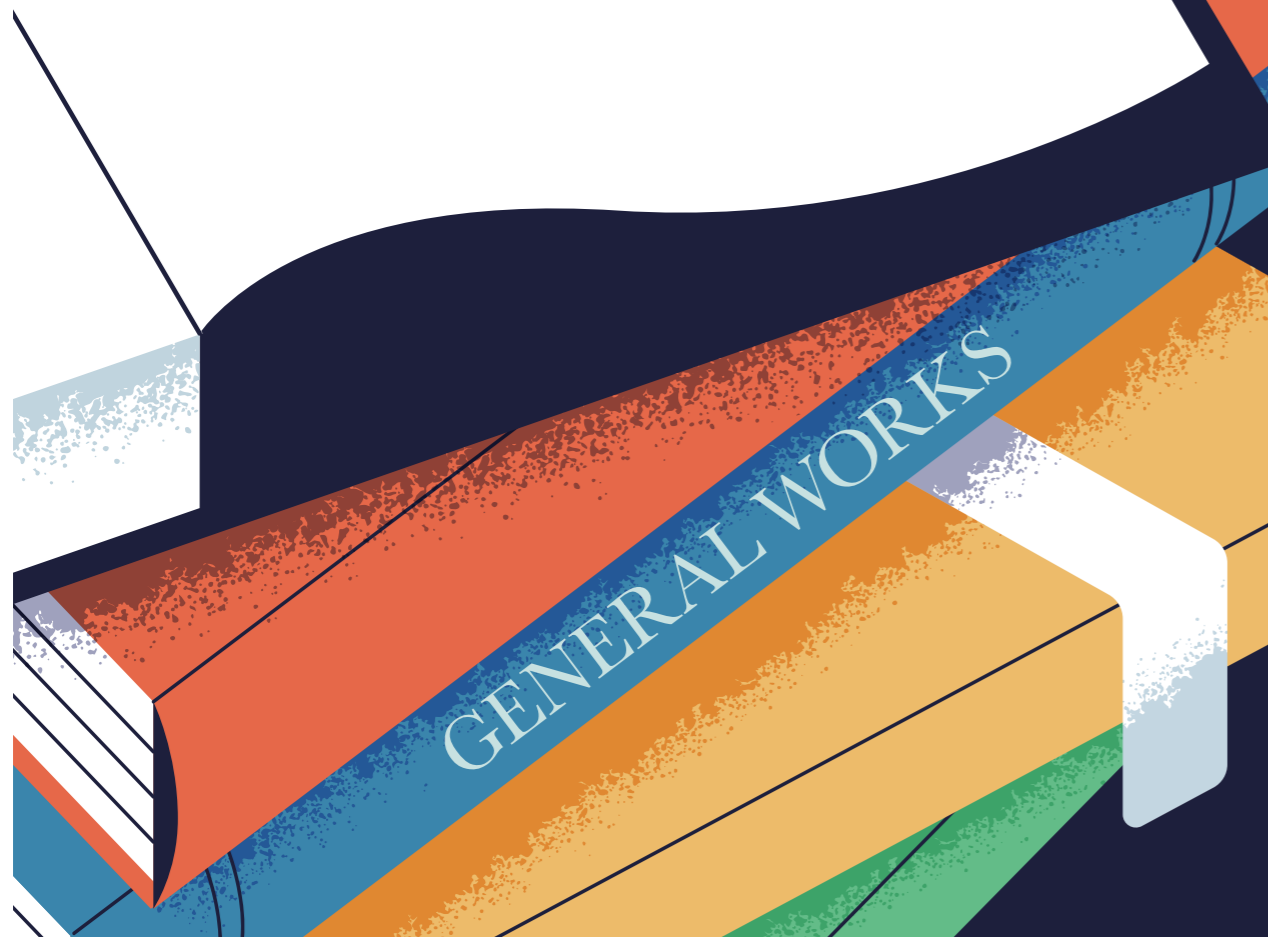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 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j.or.kr

십진분류 총류의 의미 지식의 지식, 분류의 분류

인터넷과 세상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뭔가 항상 불만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잘 모르겠으니까. 이 가려움을 인공지능(AI)이 채워줄 수는 없다. 내가 굶어야 시원해진다. 도서관이라는 오래된 지식 창고에 이 가려움을 굶어줄 도구가 모인 구역이 있다. 바로 총류가 그곳이다.

글 정철(출판사 빈서재 대표, 《검색, 사전을 삼키다》 저자)



한국십진분류법(KDC)의 총류란?

도서관의 자료 주제를 열 가지로 구분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오늘의 도서관'을 살펴본다. 첫 번째 분류인 총류에는 도서학, 서지학, 문헌정보학, 백과사전, 신문 등이 해당된다.

책에 관한 책, 학문에 관한 학문

도서관의 분류체계는 책이 늘어나면서 책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만든 지식의 구분 법이다.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지식 간에 융합이 벌어지는 지금 세상에서 그 효용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해도, 아직까지 책이라는 물리적인 매체를 분류하기엔 이것 만큼 편리한 기준도 없다.

지식이 복잡해지면 해당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이 필요해진다. 배, 사과, 굴 등을 배 추, 호박 등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구분의 기준점을 세워야 하며, 과일과 채소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이다. 이런 과정을 추상화라고 하며 메타(Meta)라고 부르기도 한다. 학문도 마찬가지여서, 학문이 복잡해지자 여러 학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학문도 생겨났다. 문헌정보학이 그것이다.

기타 혹은 총괄

뭔가 정리를 하다 보면 어디에도 넣기 애매한 것들이 반드시 생긴다. 철학을 다룬 만화라면 사람에 따라 철학에, 혹은 만화에 넣을 것이다. 아니면 넣을 수는 있지만 너무 양이 적어서 새로운 분류에 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타'이다. 즉 분류의 기본은 A, B, C, 그리고 기타, 이렇게 분류자가 다루기 좋은 방식으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도서관의 분류체계에는 그 기타에 해당하는 분류를 만들어서 '총류'라고 이름 붙였다. 총괄하는 분류라는 뜻이다. 여기엔 온갖 애매한 요소가 들어 있다. 지식 일반에 대한 내용, 서지학, 문헌정보학, 백과사전, 잡지, 학회 간행물, 저널리즘, 전집 등이 그것이다. 다른 분류를 찾다가 정 못 찾으면 마지막으로 방문해야 하는 곳이 바로 총류이다.



아니, 검색하면 되지 않냐고? 1990년대 이후 태어난 분들은 어려서부터 검색을 해왔겠지만 그 앞세대에게는 검색이 당연하지 않았다. 정보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꽤 어려웠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도서관에서 책과 정보 찾는 법을 별도로 가르쳤다. 지금도 그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검색이라는 도구가 등장하여 훨씬 편리해진 것이다.



백과사전과 참고 도구

책을 읽다 보면 대개 모르는 내용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따로 설명해 준 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책도 많다. 그럴 때 찾아봐야 할 책이 바로 사전이다. 사전은 수많은 사항에 각각 짧게 설명해 둔 책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른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도서관의 분류체계처럼 분야를 나누어 항목들을 배치할 수도 있지만, 해당 분류체계를 모르는 사람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는 방식을 고안해야 했다. 그래서 사전은 가나다 순서대로 내용을 배치했다.

즉 도서관의 십진분류법을 이용해 필요한 책을 찾아 읽고, 책을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가나다 순서로 정리된 사전을 펴서 해당 개념의 뜻을 확인하여 다시 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책을 활용한 표준적인 공부 방식이다. 이 과정을 수백, 수천 번 반복하여 내 안에 쌓으면 그것이 학문이다.

이렇게 참고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백과사전과 각종 목록, 자료집 등이 모여져 있는 분류가 바로 총류이다. 아니 검색을 왜 안 하냐고? 물론 검색하면 바로 알 수도 있다. 하지만

도서관에 가서 책들의 제목과 모양을 보고 있으면, 특히 총류 코너에 가서 세상 지식이 얼마나 서로 복잡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한두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아, 지식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감탄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총류이다. 검색은 나무를 잘 찾게 도와주는 도구이지만 숲을 보기엔 적당하지 않다.



AI와 총류

나는 검색 회사에서 사전을 만들면서 사전과 검색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검색, 사전을 삼키다》라는 책을 썼다. 사전이나 검색이나 지식에 접근하는 도구일 뿐이고 지식의 체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 책을 쓴 지 8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 AI가 나와서 검색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물어보면 다 나온다고. 물론 대개는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가장 가려운 부분까지 긁어주지는 않는다. 게다가 AI에게 질문하는 법도 내가 배워야 하고 AI의 답변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가 검증해야 한다는 점은 특히 고약하다. AI에게 질문하여 얻은 답변들을 보면 짜증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혹시 당신이 짜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상태이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총류에 있는 책들을 보다 보면 AI가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지식과 지식의 관계, 지식을 쌓아 만드는 새로운 지식, 지식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쏟아놓은 경험담 등이 몰려 있다. 도서관에 가 보면 다들 자기의 관심 분야를 찾아 보느라 총류 코너에는 사람이 적은 편인데, 가끔 총류의 책을 들여다보면 의외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❶



정철
네이버와 다음에서 15년간 웹사전을 만들고 사전 편찬자들의 생각을 담은 《최후의 사전 편찬자들》을 썼다. 한중일 역사 속에서 근대화의 의미를 이해해 보고자 출판사 빈서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총류 분야 1위 도서 《공부머리 독서법》 베스트셀러와 자기계발서에 대한 편견 지우기

《공부머리 독서법》의 저자 최승필은 독서 논술 분야 사교육에 몸담은 독서교육 전문가다.

저자는 책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책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글 박균호(교사·북 칼럼니스트) 사진 출판사



한 시대를 대변하는 인기 도서들

나는 고전을 사랑한다. 거창한 이유 때문은 아니고 단지 고전이 좀 더 재미있고 생각할 거리나 통찰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처럼 책을 즐거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이나 진로를 위해 읽는 독자도 많다. 2023년 총류 분야 베스트셀러의 면면을 살펴보면, 요즘 화두로 부각한 챗GPT라든가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실무 엑셀을 다룬 책이 자리를 잡고 있다. 분야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자기 계발 차원의 독서가 성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류 분야 도서 대출 순위>

순위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1	공부머리 독서법: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독서교육의 모든 것	최승필 지음	책구루	2018
2	챗GPT: 2023 전 세계를 뒤흔든 빅이슈의 탄생	반병현 지음	생능출판사	2023
3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0: 지혜를 찾아 138억 년을 달리는 시간 여행서	채사장 지음	웨일북	2019
4	진짜 쓰는 실무 엑셀	전진권 지음	제이펍	2022
5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 한 권으로 현실 세계를 통달하는 지식 여행서	채사장 지음	웨일북	2020

* 대출 순위 조사 기간: 2023년 1월 1일~12월 31일(아동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 대상)

* 출처: 도서관 정보나루(data4library.kr)

총류 속 1위 도서는 실용서

나는 현재 중등학교 교사로서 틈날 때마다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해 왔다. 그런데 기왕에 공부를 위한 독서를 권한다면 《공부머리 독서법》처럼 독서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독서법을 알려주는 책을 곁들여도 좋겠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겠는가. 무턱대고 책을 읽으라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왜 책을 읽어야 하며 독서가 어떻게 공부 방법을 바꾸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를 이 책은 증명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지 방법론을 제시한 이 책의 저자를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부머리 독서법》에서는 어김없이 스마트폰이 독서의 적이라고 말한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책이 한 해 동안 큰 사랑을 받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 부모들도 자녀의 교육과 독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❶



박균호
교사이자 북 칼럼니스트이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학교 밖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고전 강연을 한다. 지은 책으로는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20》, 《오십, 나는 이제 다르게 읽는다》 등이 있다.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도서관법」 14조에 근거해 수립한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도서관이 나아갈 정책과 방향을 담고 있다.

제4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이며,

이 청사진 속에는 ‘따뜻한 동행, 공동체 성장, 지속 가능한 미래’가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글 이애란(문헌정보학 박사)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주요 정책과 방향

‘따뜻한 동행, 공동체 성장,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바탕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는 4대 정책 목표와 12개 핵심 과제, 24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 방향은 ①코로나19 이후 도래한 온라인 서비스와 디지털 확대, ②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 변화, ③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을 적용한 도서관 서비스, ④미래의 도서관 정책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양성과 협력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과제들은 각각의 도서관에서 각자의 계획에 반영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

잘 만든 도서관 하나가 소멸하는 지역 인구를 늘린다는 기사를 접했다. 출산 감소와 지역 소멸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서관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최근 도서관 조성의 추세는 복합문화공간과 체류 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관광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도서관 건물에 기록관, 박물관 등이 함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증가하는 것은 관련 기관 간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 도서관을 지역 명소로 만들 수 있으며, 기존 공공도서관은 공간이나 시설 혁신보다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서의 K-지식 자원

오늘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자료에서 그림이나 인터넷 글, 사진은 현재 기준에서는 등재 대상이 아니듯이 온라인 자료 중에도 후일 가치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자료 납본 기관인 광역 대표 도서관이 수집 지침을 마련할 때 지방 자료뿐만 아니라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광역 대표 도서관은 인쇄 자료 외의 사진, 영상, 구술 채록과 같은 지역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자치단체별로 공동 보존 서고 구축과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 자료 수집에 협력해야 한다.





도서관 서비스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첨단기술

문헌정보학의 관점에서 볼 때, '도서관의 혁신'은 공공기관의 광범한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그리고 기존 도서와 학술자료뿐 아니라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AR, VR)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능력으로 실현된다. 또한 인공지능은 도서 분류, 대출 반납, 장서 점검, 도서 추천, 정보검색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어 도서관 직원들이 더 높은 가치의 작업으로 업무 전환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업무 변화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나 신기술에 따른 디지털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사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앞으로 데이터와 AI 기술은 도서관 업무 전반으로 확대가 불가피하다. 도서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기술 전문 사서의 양성과 함께 미래 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을 점검해 볼 때이다.

정책 현장과 전문가, 그리고 이용자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핫이슈는 '모두의 도서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도서관', '한국 자료의 유산화', '도서관 혁신'이다. 그리고 이들 계획의 성과는 정책 현장과 전문가, 그리고 이용자가 모두 함께 만들 수 있다. 모쪼록 정책 현장과 전문가, 그리고 이용자가 힘을 합쳐 속도감 있게 본 계획의 구체적인 과제들을 곳곳에서 추진하기를 기대해 본다. ❸



이애란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회장,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와 한국도서관협회 이사, 울산광역시 지자체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운영위원장을 다년간 맡았다. 이런 활동으로 '전문대학인상'을 수상했다.

14 사서 큐레이션
새해를 맞아 읽기 좋은 추천 도서

18 오늘의 만남
글자 밖에서 글씨를 구하다
서예가 이정화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지역 주민의 건강한 독서 습관을 함께하며
오래도록 역동하는 도서관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

26 보물을 찾아서
로마 철학자 키케로의 《국가론》과 바티칸 도서관

30 도서관 트렌드
뉴노멀 시대의 지속 가능한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을 만나다

새해를 맞아 읽기 좋은 추천 도서

글 국립중앙도서관 사진 각 출판사



국내 문학

불타는 작품

윤고는 지음 | 은행나무 | 2023

“불타는 작품만이 진짜라고. 불타고 있을 때, 그 순간의 화력만 이 사람의 영혼을 움직인다고. 그런 의미에서 화염을 피해 밖으로 나온 건 진짜일 수 없다고.”(341쪽)

예술적 안목을 가진 백만장자 개가 있어 예술가들을 지원한다. 예술가는 이 개가 선택한 작품 한 점을 소개하는 데 동의해야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아시아 최초 영국의 대거상 번역추리스 설상을 수상한 윤고는이 신간 《불타는 작품》에서 제시하는 기발한 상황이다.

이야기는 로버트(개)가 ‘캐니언의 프러포즈’라는 사진으로 유명해지고 예술재단 이사장이 된 후 생계를 위해 배달 라이더가 된 예술작가 ‘안이지’를 후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로스앤젤레스의 산불을 뚫고 도착한 팜스프링스에서 주인공은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상황들과 마주한다. 로버트와의 만찬, 화제의 예술 작품으로 도시를 재생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 로버트의 정체와 로버트 재단의 숨겨진 진실에 대한 혼란 등,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을 통해 작가는 예술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빛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 저자 소개

윤고는 2008년 장편소설 《무중력증후군》으로 한겨레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1인용 식탁》, 《알로하》, 장편소설 《해적판을 타고》 등을 썼다. 이효석문학상, 대거상 번역추리스설상 등을 수상했다. EBS 라디오 방송 〈윤고는의 EBS 북카페〉를 4년째 진행하고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밤의 여행자들》 윤고는 | 2013
-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최은영 | 2023
- 《눈부신 안부》 백수린 | 2023



국외 문학

88번 버스의 기적

프레아 샘슨 지음 | 윤선미 옮김 | 모모 | 2023

“지난 60년 동안 애끓는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고맙단 말을 하려고요. 그날 우리가 나눈 대화가 내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꿔놨기 때문이죠.”(398~399쪽)

남녀노소, 직업이 무엇이든지 누구나 타는 버스. 그토록 흔한 장소에서 인생을 바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실연의 상처를 안고 런던으로 온 리비는 우연히 버스 안에서 노인 프랭크를 만난다. 60년 전 버스에서 엇갈린 첫사랑을 찾기 위해 매일 88번 버스를 타는 프랭크의 사연을 듣고 도와주기로 결심한다. 펑크족 스타일을 고집하는 프랭크의 요양보호사 딜런, 딜런이 돌봐주는 에스메, 88번 버스 운전기사, 프랭크에게 도움을 받았던 유학생 수니, 모두가 한마음으로 프랭크의 첫사랑을 찾기 위해 돕는다. 프랭크를 위한 이웃들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가면서 리비의 삶에도 서서히 변화가 찾아온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을 때란 없다”라고 말하는 프랭크, 치매에 걸린 그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88번 버스의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

이 책을 읽으며 버스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 동참해 보기를 바란다.

📖 저자 소개

프레아 샘슨(Freya Sampson)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했고 글쓰기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파버 아카데미를 졸업했다. 방송국 총괄 프로듀서로 일했으며 지상파 방송국 채널4의 〈포 인 어 베드〉 및 BBC의 왕실 다큐멘터리 〈로열 패밀리〉 두 편을 연출했다. 저서로는 《더 라스트 라이브러리》가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어머니의 유산》 미즈무라 미나에 | 2023
- 《다섯 가지 소원》 조 사이폴 | 2020
- 《에이프릴은 노래한다》 엘리 라킨 | 2023



인문예술

수상한 단어들의 지도

데버라 워런 지음 | 홍한결 옮김 | 월북 | 2023

“단어는 스냅사진이 아니라 천년짜리 영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어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다 할 수 없는 게 ‘말’이니깐요.”(322쪽)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원래는 털구두였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영어 단어들의 어원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 나쁜 말’, ‘동물의 세계’, ‘무엇이라 부르랴’, ‘말도 가지가지’의 5가지 주제 아래 택시, 버스, 지프, 소렌토 등 자동차부터 피자, 도넛, 비스킷 등 먹거리, 데님, 재킷, 카디건 같은 패션까지 우리 주변의 익숙한 사물들에 숨겨진 단어들의 어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각 챕터는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되며, 영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단어에 깃든 사연들을 통해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단어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언어 세계여행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 저자 소개

데버라 워런(Deborah Warren) 하버드대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라틴어 교사, 영어 교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다. 평생 ‘책벌레’라는 별명으로 불린 사람답게 지금도 라틴어와 프랑스어 책 읽기가 취미다. 로마 시인 아우소니우스의 시선집을 번역했고 《뉴요커》, 《파리 리뷰》 등에 글을 기고했다. 시에도 재능을 보여 로버트 펜 워런 상, 로버트 프로스트 상, 리처드 윌버 상, 뉴 크라이티리언 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어원의 발견》 박영수 | 2023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어원잡학사전》 패트릭 푸트 | 2021
- 《걸어 다니는 어원사전》 마크 포사이스 | 2020



인문예술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자미라 엘 우아실·프리데만 카릭 지음 | 김현정 옮김 | 원더박스 | 2023

“스마트폰으로 말미암아 호모 나랜스는 그 어느 때보다 무수한 자신의 이야기를 생산할 수 있는 초강력 이야기꾼이 되었다. 이처럼 초강력 이야기꾼이 된 인간은 끊임없이 구성하는 자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외부로 향해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더 많이 애쓴다.”(214쪽)

이야기는 세상을 구성한다.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구성한다. 바야흐로 이야기하는 인간, 호모 나랜스의 시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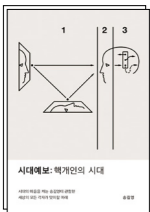
저자들은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이야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대인은 소셜미디어, OTT 서비스 등 많은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미디어 역시 이야기로 구성되므로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야기가 왜, 어떻게 전달되고 기능하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준다. 마스터 플롯과 같은 문학 이론에서 시작하여 고대 신화, 현대 인터넷의 영향, 여성에 대한 적대적인 이야기,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 실패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인간은 이야기 없이 살아간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으며, 그 만큼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정치와 미디어, 마케팅이 이야기를 통해 대중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읽다 보면 경각심을 느끼게 된다.

📖 저자 소개

자미라 엘 우아실(Samira El Ouassil) 뮌헨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과 독일 현대문학을 전공했다. 포털 '위버메디엔'에서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팟캐스트 〈작 니말스 니체〉에서 철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리데만 카릭(Friedemann Karig) 언론학, 철학, 사회학, 경제학을 전공했고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일간지 중 하나인 〈취트도이체 차이퉁〉을 비롯하여 《취트도이체 차이퉁 마가진》, 《디 차이트》 등의 잡지와 온라인 매거진 《에츠트》에 기고하고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호모 포에티카》 최상욱 | 2022
- 《내 맘대로 고전 읽기》 최봉수 | 2020
- 《면서포를 쓰는 신화 속 한국 여인》 최정철 | 2022



사회과학

시대에보: 핵개인의 시대

송길영 지음 | 교보문고 | 2023

“마찬가지로 AI와 자동화 역시 원인과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참여의 여지가 있기에 재앙이 될 것인가 축복이 될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장마철 일기예보를 외면하고 하천 길로 나서는 무모한 산책객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대에보’에 귀 기울여 생존의 기술로 무장한 뒤 새로운 시대에 나서야 합니다.”(149쪽)

세상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고 해석하는 저자는 이제 ‘핵개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예보한다. ‘핵개인’이란 무엇일까? 디지털 도구와 인공지능(AI) 시스템의 도래, 조직과 가족이라는 테두리의 무너짐, 더 길어질지 모르는 100세 이상의 생애주기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인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저자는, 이러한 새로운 개인을 ‘핵개인’이라 정의하고 있다.

《시대에보: 핵개인의 시대》는 학벌 인플레이션, 돌봄 과도기, 투명 사회, 호도의 종말, 이연된 보상 등 지금 시대를 살뿐다. 동시에 본인의 정체성으로 국가가 아닌 도시를 택하는 서울러, 업적의 크기를 따져 그에 합당한 존경 총량을 정하는 5분 존경 사회, AI 동료, 마이크로 커뮤니티, 미정산 세대 등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를 예보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앞으로의 내 삶을 대비하기 위한 ‘시대에보’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

👤 저자 소개

송길영 시대의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Mind Miner)이다. 사람들의 일상적 기록을 관찰하며 현상의 연유를 탐색하고 그들이 찾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20여 년간 해왔다. 저서로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 《상상하지 말라》, 《그냥 하지 말라》가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디지털이 할 수 없는 것들》 데이비드 색스 | 2023

《어떻게 불안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가》 제인 맥고니걸 | 2023

《세계미래보고서 2022》 박영숙·제품 글렌 | 2021



사회과학

2024 AI 트렌드

딥앤와이랩스 지음 | 한스미디어 | 2023

“인간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정답은 바로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일 것이다.”(370쪽)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도구”.

이 책은 인공지능(AI)에 관한 기술적 설명보다는 인공지능이 의료,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또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라질 직업과 새로이 나타날 직업 등 인공지능이 미래의 우리 삶에 끼칠 영향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에 대한민국 및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풀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터득하고 체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인공지능에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을 읽고 마음속에 있던 벽을 허물어 인공지능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 변화하는 시대에 같이 발맞추어 가기 위해서 말이다.

👤 저자 소개

딥앤와이랩스 인공지능과 IT를 연구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이며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딥러닝 등 폭넓은 관심과 지식을 공유하며 연구 및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딥앤와이랩스는 SKT AI 서비스, AI 기반의 투자, 데이터 분석 및 기획, 데이터 모델 개발 등 AI 및 데이터 분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딥앤와이랩스의 구성원의 주요 저서로는 《기술경영》, 《테크노 사피엔스》, 《애프터 스마트》 등이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초거대 위협》 누리엘 루비니 | 2023

《AI 혁명의 미래》 정인성·최홍섭 | 2023

《AI 2024》 김덕진 | 2023



자연과학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민태기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3

“우리 선조들은 무기력하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폭넓은 행보를 보이며 당대의 흐름과 같이했다. 과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 과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에 다시는 과학에 뒤처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현실 극복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292쪽)

100년 전 조선의 신문에 아인슈타인이 등장했다? 당시 과학계의 뜨거운 논쟁거리인 상대성이론을 열정적으로 소개하고 알리려고 한 구한말의 과학자들. 그들은 상대성이론을 알리는 데 왜 그렇게 열정적이었을까?

이 책은 1895년부터 6·25전쟁 직후까지의 근대 과학사를 중요 인물과 사건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1920년 조선에 처음 상대성이론을 소개한 잡지 《공우》, 1922년 아인슈타인을 만난 황진남, 1934년 양자역학을 강의한 최구남, 1935년 ‘종의 합성’으로 다윈의 이론을 뒤흔든 우장춘, 1949년 세계 수학계를 놀라게 한 이임학, 1955년 국내 첫 노벨상 후보자인 이태규 등 일제강점기 어두웠던 시절에도 빛났던 당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방대한 자료 조사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진 자료와 함께 풀어내는 이야기들은 다채롭고 흥미롭다.

시대의 비극과 아픔을 과학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100년 전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새로운 시대를 향한 뜨거운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 저자 소개

민태기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UCLA 연구원,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현재는 에스엔에이치 연구소장으로 누리호 및 차세대 발사체 엔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판타 레이: 혁명과 낭만의 유체 과학사》 민태기 | 2021

《(신동원 교수의) 한국과학문명사 강의》 신동원 | 2021

《한국의 과학 천재들》 이종호 | 2016



자연과학

일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수면법

스미야 료 지음 | 이효진 옮김 | 한빛라이프 | 2023

“잠을 자면 별다른 수고 없이 머릿속에 있는 쓰레기가 비워지고 기억이 정리되어 몸과 마음의 건강이 회복된다. 수면은 이 시대의 비즈니스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공짜로 매일 만들어준다.”(66쪽)

우리는 잠으로 인생의 3분의 1을 보낸다. 그런데 제대로 잠자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저자는 성공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일에 몰두해야 하던 시절은 지났다고 이야기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양보다 일할 때의 컨디션과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 능력은 ‘숙면’을 통해 끌어낼 수 있으며 숙면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저자는 ‘하루’, ‘일주일’, ‘계절’,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숙면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기’, “잠을 깨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잠을 깨기”와 같이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새로운 수면 상식도 담았다. 꿀잠 자게 하는 스트레칭부터 스르륵 기상법까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숙면 실천법 등 저자의 풍부한 숙면 노하우와 상당 경험을 알차게 정리했다.

숙면은 나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실질적인 조언에 따라 나만의 숙면 지도를 그려보고 실천해 보면 어떨까? 잠만 잘 자도 인생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소개

스미야 료(角谷リョウ) 수면 컨설턴트로 일본 유수의 대기업들을 포함한 120여 개사, 약 6만 5000명의 수면 개선을 지도한 상급 수면지도사이다. 인지 행동 기법이나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수면 개선 방법으로 수면 지도를 하고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 | 2019

《운동의 뇌과학》 제니퍼 헤이스 | 2023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김혜남 | 2023



글자 밖에서 글씨를 구하다 *자외구서(字外求書)

서예가 이정화

글씨를 쓸 일이 많이 없어진 요즘, 글씨를 쓴다는 행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서예가 인중(仁中) 이정화다. 생각해 보면 글씨는 언제나 종이 밖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려던 말,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만 비로소 탄생하는 글씨.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작품이 되어 세상에 남는다면, 결코 단 한 글자도 허투루 쓸 수 없을 것이다.

진행 이혜민 사진 안호성

먼저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예가 인중(仁中) 이정화라고 합니다. 일곱 살 때부터 서예가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글씨를 썼고, 경기대학교 예술대학 서예문자예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동 대학원 서예문자예술전공 석사를 졸업한 후에는 서예를 많은 사람에게 편안하게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강의와 강연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요. 드라마와 영화에서 연기자들의 서예 장면 대필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김태리, <호텔 델루나>의 아이유 등 유명 드라마와 영화에서 여배우들의 서예 대필을 한 것으로 알려지셨습니다. 이렇게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10년도였거든요. 그때 제가 대학교를 막 들어갔을 때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1999년도 드라마 <허준> 때부터 연기자들의 대필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드라마 현장에서 급하게 2~3시간 안에 여자 대필자를 구해야 된다고 하셨나 봐요. 그때 아버지가 제 생각이 나서 추천을 하셨고,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썼던 글씨를 감독님께서 좋게 보셔서 앞으로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 인연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60여 개 대회에서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필체가 다르듯 붓글씨도 다를 것 같은데요. 서예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기준은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상권에 들 수 있는 자연스러움은 글씨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자연으로 보여야 하는 것인데요. 자연에는 무조건 산만 있지 않고 무조건 물만 있지도 않잖아요. 산과 물이 잘 어우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드라마의 흐름을 해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써 내려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서예를 배울 때 자연과 많이 닮게 써야 된다고 배워서 자연을 닮은 '자연스러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독서를 하면서 인상 깊은 구절을 필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대필은 필사와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글들을 필사하셨고, 그 과정에서 가지게 된 생각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된 부분이 있나요?

드라마에서 대필할 때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쓰는 '임서(臨書)'라는 게 있어요. 옛날 선인들의 글씨를 따라 쓰는 건데, 그러면서 그 사람의 필체를 배우기도 하고 거기에 나의 필체를 섞어서 새로운 필체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서예는 다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문장을 처음에는 베껴 쓰다가 나중에는 외우게 되고 그 내용이 마음에 담아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죽어도 제 작품은 계속 남잖아요. 제가 없어지는 때까지 쓴 내용만큼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화

일곱 살 무렵 서예를 시작해 60여 개 서예 대회에서 수상했다. 경기대학교 서예문자예술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서예문자예술학 석사를 취득했다. 현재 여러 기업과 학교에서 강연 중이며, 드라마와 영화에서 서예 대필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일희일비하는 그대에게》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책 내용 중 “글씨를 쓰면서 작은 점 하나에 크게 웃기도 하고, 퍼지는 먹 번짐에 눈물” 짓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떨 때 그런 감정을 느끼셨던 걸까요?

이 책은 제가 서예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담은 거예요. 처음에는 서예와 관련한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서예 잘하는 법' 같은 것은 더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이 서예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에세이 형식으로 썼어요. 말씀하신 점 하나에 웃고 울고 했던 게 글씨라고 하면 글씨겠지만, 살아가면서 느꼈던 감정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글씨를 쓸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심'이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느끼지 않은 것은 쓰기가 어렵고, 제게 와 닿지 않았던 것들을 남기는 게 조금은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이 글이 얼마나 오래 남아 있을지를, 저는 그걸 공부하던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제 작품 안에 제가 느꼈던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작품을 남기셨는데요. 평소 영감은 어떻게 얻으시나요?

제가 “모든 사람은 다 예술가가 된다”라는 글을 쓴 게 있는데요.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아마 책 원고를 쓸 때였나, 넓은 통창 앞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앞에 쓰레기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 좀 누가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가 너무 예뻐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노란 조끼를 입은 환경미화원이 그 쓰레기를 딱 치워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저분이 이곳의 예술가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술가가 된다”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많이 씁니다.

서예가로서 붓글씨를 쓸 때 가장 염두에 두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글씨를 쓰면서 궁금했던 게, 사람들이 서예가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가였어요. 서예가에게 단순히 예쁜 글씨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문장력’을 요구하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분이 저한테 오셔서 제 글씨를 하나 받고 싶은데 혹시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써줄 수 있냐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분들은 내가 어떤 문장을 만들어서 써주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에세이를 쓰면서도 많이 했고 작업을 하면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술은 직접적으로 생명을 살리지도 세상을 구하지도 않기에 어쩌면 별 쓸 일이 없다 할 수 있겠지만 지나칠 마음들을 잠시 돌아볼 수 있게 하며 순간을 영원함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여 세상을 더욱 세상답게 한다.

- 《일희일비하는 그대에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고문헌의 보존은 물론 열람이 가능한 고문헌도 많은데요. 서예가로 활동하며 국립중앙도서관에 방문하거나 도서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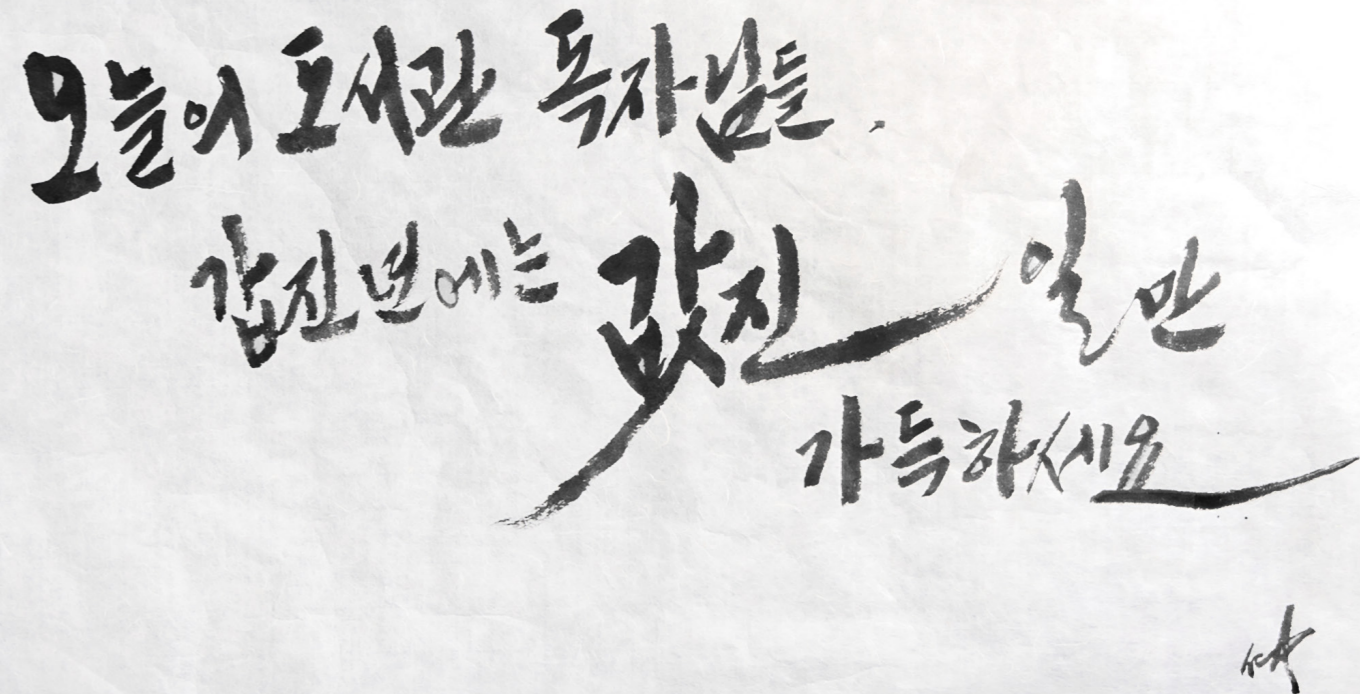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은 근처에 갔을 때 한 번 가봤어요. 가서 모든 소지품을 다 맡기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제가 논문을 쓸 때였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려던 자료들은 밖으로 빌려갈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맡겨야 하고, 또 빌려갈 수는 없다는 게 처음에는 번거롭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여기는 진짜 책을 위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동안 서예가로 활동하며 인상적이었던 작업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제가 작년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프랑스의 10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한글학교, 초중고, 입양인 단체에서 서예 수업과 퍼포먼스를 했어요.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외국인들에게 서예를 알려주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그들이 서예를 보며 느끼는 감정을 제가 느낄 수 있다는 게 행운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학생 중 한 명이 했던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한국에는 케이팝 같은 반짝반짝한 문화만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게 반짝일 수 있었던 건 서예 같은 한국 문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아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씨와 글씨는 다 씨앗이 되어서 하얀 종이 밭 위에 심어지거든요. 모든 씨앗이 오래오래 자랄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한 말, 예쁜 글들만 사용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❶



저는 글씨를 쓸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심'이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느끼지 않은 것은 쓰기가 어렵고, 제게 와 닿지 않았던 것들을 남기는 게 조금은 무섭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 안에 제가 느꼈던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서예가의 인터뷰 영상은 국립중앙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한 독서 습관을 함께하며 오래도록 역동하는 도서관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



본관 1층 일반자료실의 서가

마라톤 선수의 옆에서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처럼,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이하 율목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독서 습관이 자리하는 과정을 함께한다. 그 중심에는 ‘자발적인 독서 습관 형성’을 지향하며 2022년부터 개편된 도서관 특화사업 ‘독서트라이애슬론’이 있다. 능동적으로 독서 생활 습관을 만드는 도전을 제안하며 지역 주민의 독서 동반자로 거듭난 율목도서관을 찾았다.

취재 구자영 사진 안호성

별관 앞 주차장에 설치된 조형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기 좋은 본관 창가 자리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

이용 시간

일반자료실Ⅰ, 일반자료실Ⅱ, 정기간행물 코너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YM발전소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5시
소극장, 휴게실, 옥상, 별관(어린이자료실Ⅰ,
어린이자료실Ⅱ, 어린이작업실 모야)
평일 및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 24번길 17
(율목동)

전화번호 032-770-3800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된 천장 구조가 인상적인 별관 내부



본관과 별관을 잇는 돌계단과
아기자기한 오브제

오래된 토대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다

율목도서관은 2011년에 정식으로 개관하였지만, 건물 자체의 역사는 7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6년 12월에 개관한 인천시립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새롭게 연 도서관이 지금의 율목도서관이다. 기존의 인천시립도서관은 2009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전한 후 미추홀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렇게나 긴 역사의 증거는 지금도 율목도서관 곳곳에 남아 있다. 그 가운데서도 현재 어린이자료실이 있는 별관 건물은 적산가옥인데, 외관에서부터 세월의 흔적이 도드라진다.

율목도서관 일대는 1800년대 인천 개항 후 수출입 화물 관련 관세 행정 사무를 위임하던 중국인의 과수원 부지였다. 이후 일본인 정미업자가 이 부지를 인수하여 지은 주택이자 별장 건물이 바로 율목도서관의 별관이 된 것이다. 별관 내 천장의 서까래, 별관 앞에 남아 있는 일본식 석등이나 정원석 등의 조형물이 지난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율목도서관은 그 오랜 시간과 더불어 매일을 살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서 실마리를 찾다

지난해 9월, 율목도서관은 기쁜 소식을 맞이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한 ‘제17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에서 율목도서관의 특화사업 ‘독서트라이애슬론’이 최우수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다. 1,000여 명의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특강-챌린지-리워드’로 구성된 프로그램에서 자발적으로 독서 습관을 갖추게끔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트라이애슬론은 수영·사이클·마라톤으로 구성된 스포츠 종목으로, 일명 ‘철인 삼종 경기’라고 불린다. 여기에 독서를 접목해 완성한 사업이 ‘독서트라이애슬론’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사실 처음부터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않았다.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 특화사업 '독서트라이애슬론'의 3단계 구성

기존의 독서트라이애슬론은 '자발적인 독서 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골고루 읽기-꼼꼼히 읽기-계속 읽기'의 3단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하였다. 강연, 독서 모임, 독후 활동 등을 제공하며 시작됐지만,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존폐 위기에 놓인 바 있다. 그러던 지난 2022년, 율목도서관으로 발령받은 박소현 사서가 담당자가 되면서 사업은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럽게 맡은 사업을 어떻게 살릴지 고민하던 박소현 사서는, 사업 목적만을 남겨두고 세부 내용을 다시 기획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두 가지로부터 실마리를 얻는다. 계획적인 독서 습관 루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현대인의 흐름, 그리고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저마다의 욕구였다. 박소현 사서는 여기에 공공도서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더해 사업을 개편했다.

세 개의 참여 계층, 세 개의 기획

2022년에 개편됨과 동시에 2년간 진행되었던 독서트라이애슬론 사업은 2022년에는 총 1,263명, 2023년에는 총 1,897명이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 율목도서관의 독서트라이애슬론은 사업 목적과 '3단계 구성'이라는 틀은 이전과 동일했다. 다만, '자발적인 독서 습관 형성'이라는 목적에 맞춰 참여 계층은 더 세분화했고, 프로그램의 호흡은 더 길게 가져갔다. 각 단계마다의 일정이 단발적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방식은, 습관 형성 기간을 고려하여 21일간 진행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청소년과 성인으로만 분류했던 참여 계층도 가족, 청소년, 일반, 이렇게 셋으로 다시 구성되었다.

책 선정, 특강 주제, 챌린지 내용 등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매년 달라졌다. 또한 각 참여 계층의 특성에 맞게끔 서로 다르게 기획됐다. 일반 참여자에게는 기획력과 문장력 등 개개인의 성장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청소년 참여자에게는 꿈이 많은 만큼 해내야 할 것도 많다는 상황을 반영해 목표 설정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실천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짰다. 마지막으로 가족 참여자들은 자녀와의 독서 시간을 마련하거나 자녀의 건강한 독서 습관을 만들게끔 도왔다.

천릿길의 선순환 구조도 한 걸음부터

프로그램은 모두 3단계로, 각 단계는 '특강-챌린지-리워드'로 구성됐다. 이는 참여자의 습관 형성 과정을 선순환으로 이끌었다. 먼저, 특강은 21일간의 도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하며 프로그램의 막을 올린다. 각 계층이 공감할 만한 주제와 연사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1회성으로만 소비되지 않고 챌린지용 오픈 카톡방에서 참여자들 간에 소감이 자유롭게 오가며 특강 속 메시지와 여운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특강 진행일과 맞물려 마침내 21일간의 도전이 시작된다. 이는 참여자들의 도전 성패 여부와도 맞닿아 있기에 박소현 사서는 30분 책 읽기, 자기 전에 자녀와 그림책 읽기, 책 읽고 한 문장 남기기 등으로 챌린지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구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비슷한 관심사를 지닌 채 모인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21일간 습관을 만들 수 있게끔 챌린지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챌린지 인증이나 참여 격려 등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만 언급하는 용도

로 오픈 채팅방을 관리하고, 나아가 암호를 걸어 외부의 변수를 차단했다. 마지막 단계인 리워드는 참여자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는 21일에 큰 원동력이 되어준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족 참여자는 예외였다. 개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리워드 대상자를 선발하는 만큼, 가족 모두가 보상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게 리워드를 기획했기 때문이다. 도서관 측에서 공연팀을 섭외해 리워드 대상 가족만을 위한 공연을 펼치는 등 그 가족만을 위한 시간이 마련됐다. 오직 '가족' 참여 계층만을 위한 따뜻한 리워드였다.

이처럼 독서트라이애슬론은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환경을 모두 활용한다. 그렇기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챌린지 인증 방법이나 오픈 채팅방 조작법 등 디지털 기기가 익숙지 않은 참여자도 있기 마련이었다. 그런 경우에 도서관 측에서는 따로 설명을 제공하며 어떻게든 챌린지로의 장벽을 허물었다. 책이라는 공통분모하에 비슷한 관심사를 지닌 이들이 각자만의 독서 루틴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파악한 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율목도서관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성공적으로 유도한 방식이었다.

삶과 도시를 재생하는 사소한 계기를 기획하다

구도심에 속하면서도 주거 시설이 모여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그중에서도 율목도서관은 대로변과는 떨어져 있다. 좁다란 골목길과 야트막한 건물들이 늘어진 주택가를 지나 경사진 오르막길을 올라야 비로소 다다를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을 염두에 두고 율목도서관에서는 지역 주민의 일상에 책과 도서관



하얗게 눈이 쌓인 별관 뒤쪽의 모습

으로의 작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기획하며 실행한다. 개항로에 위치한 카페 '오프닝포트'에 매주 도서관의 새로운 책을 비치해 두는 방식으로 협업을 진행하는 것이 그 예다.

기존의 삶에 독서 습관을 더하는 21일간의 여정은 올해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거창한 결심보다는 가벼운 시도에서부터 시작될 지역 주민들의 도전은 또 다른 빛깔의 성취감을 머금고 있지 않을까. 그 도전을 공공기관만의 개성과 강점으로 안정감 있게 이끌 율목도서관만의 든든한 행보를 기대한다. ❷



율목도서관 특화사업 '독서트라이애슬론' 담당 박소현 사서

"돌이켜보면 새로운 일터로 발령받자마자 처음 맡은 사업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목적만 남기고 다시 기획한 사업을 좋게 봐주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업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때 읽었던 책 중에서 이 사업을 다시 기획하는 데에 많은 인사이트를 준 책이 임다혜 작가님의 《딱 1년간 계획적으로 살아보기》입니다. 매일 꾸준히 목표를 조금씩 가까워지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책인데요. 그 책과 연계된 챌린지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오늘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 선사하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독서트라이애슬론 사업을 기획하는 데에도 큰 밑거름이 되어줬네요. 또한 사업 담당자이자 프로그램 운영자로서 매년 1,000여 명의 참여자분들과 함께하며 느낀 연대 속에서 오가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독서트라이애슬론 사업은 앞으로도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을 만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요. '기획하는 사서'로서 지역 주민분들이 건강하게 독서 습관을 만드실 수 있게끔 앞으로도 독서트라이애슬론 사업을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로마 철학자 키케로의 《국가론》과



우리가 읽고 있는 《국가론》은 온전하게 전해진 텍스트가 아니라, 이른바 간접 전승의 방식으로 전해 오는 문장이 많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교 신학자이자 작가인 락탄티우스(Lactantius, 240?~320?),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와 같은 저자들의 저술에서 인용된 키케로(Cicero, B.C. 106~B.C. 43)의 문장들을 찾아내어 다시 엮고 묶어서 복원한 것이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시편 주석》은 《국가론》의 수호천사 노릇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글 안재원(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사진 안재원, 위키미디어

키케로의 《국가론》은 어떤 책인가

폴리비오스(Polybios, B.C. 220~B.C. 146)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지어진 키케로의 《국가론》은 기원전(B.C.) 54년에서 51년 사이에 저술된 것이다. 키케로는 자신의 지음(知音)이었던 아티구스(Atticus, B.C. 110~B.C. 32)에게 기원전 50년 5월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밝힌다. “복본을 만들게나.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보겠네(ita fac ut habeas; nos quidem sic habemus).”(《아티구스에게 보내는 서신》 6.2).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¹, 편지에서 언급된 복본이 《국가론》이었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 편지에서 키케로는 아티구스에게 자신이 새롭게 저술한 책의 교정을 부탁한다. 이것을 놓고 볼 때, 《국가론》은 키케로에게 매우 중요한 책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책은 제대로 전송되지 못하고 만다. 여기에는 여러 해명이 가능할 것이다. 일단, 《국가론》은 1인 지배의 사적인 왕국이 아닌 모두에게 공동인 공화국, 즉 공화정의 구성 원리와 발전 방안을 다루는데, 이는 왕정 체제의 황제들에게는 언제나 불순하고 불온한 내용이었다.

시대에 반하는 내용으로 난도질당하다

그도 그럴 것이, 공화정의 복원을 염원하고 실제로 이를 위해 실천에 옮겼던 많은 공화주의자들에게 《국가론》은 일종의 경전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로마공화정 말기와 제정 초기에 공화정 및 공화주의를 다루는 책들 가운데에 물리적으로 훼손되거나 중요한 부분으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뒤통이로 찢겨 나간 것들이 상당수 있다. 이 책들에서 훼손된 부분들은 대체로 공화정과 공화주의를 찬양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 방증하는 인물이 타키투스(Tacitus, 56?~120?)가 지은 《연설가에 대한 대화(Dialogus de Oratoribus)》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마테르누스이다. 그는 소위 키케로주의자로 등장해서 키케로의 연설 방식을 찬양하는데, 마테르누스는 실제로 베스파시아누스 제정기에 공화정을 예찬하다가 사형당한 연설가로 추정되기도 한다. 키케로의 《국가론》도 그 내용의 불온성 때문에 제정기에 이미 난도질당했던 다른 책들과 비슷한 운명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가 보는 《국가론》의 모습으로 말이다.

¹ 참조. John J. Philips(1986), 《Atticus and the publications of Cicero's works》, The Classical World 79-4, 227~237쪽.

키케로는 재능에 걸맞은 판단력으로써 이 순서를 고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를 책임지든, 여가를 즐기든, 그는 언제나 정의를 논의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불멸의 정신들이 자리하는 신성한 거처와 하나의 비밀을 자신의 작품의 정상에 올려놓고, 이성, 정의, 용기, 절제로 국가를 책임졌던 사람들은 이곳으로 가야 하고, 아니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Commentarii in Somnium Scipionis》, 1.1.8)

- 마크로비우스(Macrobius, 서기 5세기 활약)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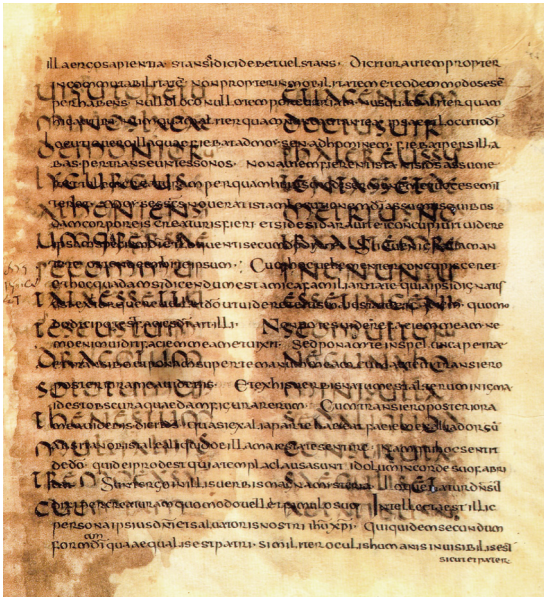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인류의 보편 정신이 담긴 책

마크로비우스는 키케로의 《국가론》이 ‘이성, 정의, 용기, 절제’가 좋은 나라의 구성 원리이자 운영 원칙임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요약한다. 이 원리와 원칙은 인류의 보편 정신이기에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 지금도 유효하다. 그럼에도 키케로의 《국가론》은 온전하게 전송되지 못했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탄압도 한몫 거들었다. 하지만 《국가론》이 서양 역사의 문명사적인 전환에 따른 피해를 피하지 못한 탓도 있다. 인간 중심의 서양 고대 문명은 신 중심의 중세 그리스도교 문명으로 전환된다. 이 전환은 많은 문헌의 전승 운명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헌이 바로 키케로의 《국가론》이다.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의 오래된 도서관
장실 안에 있는 로마 철학자 키케로 흉상

아래 사진은 《국가론》 2권 2장의 내용을 전하는 사진이다.



Vat. Lat. 5757 277r

바티칸 도서관에서 《국가론》이 특별 대접을 받는 이유

사진을 자세히 보면 키케로의 문장에 다른 글이 덧씌워진 것을 볼 수 있다. 덧씌워진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시편 주석》(119~140편)의 일부이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석도 중요하다. 하지만 키케로의 《국가론》을 전하는 것이기에, ‘Vat. Lat. 5757’은 요즘 특히 각광받는 문헌이다. 세속의 문헌임에도 바티칸 도서관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²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석 밑에 깔린 텍스트가 키케로의 《국가론》임을 처음 발견한 이도 사실은 사제였던 안젤로 마이(Angelo Mai, 1782~1854) 추기경이었다. 우연의 선물이었겠지만 1819년에 바티칸 도서관의 관장으로 재직했던 마이 신부는 전문 학계와 일반 독자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찾아다녔던 키케로의 《국가론》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사람이다. 이후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이 문헌을 판독하고자 달려들었다. 《로마사》의 저자로 유명한 니부어(Niebuhr, 1776~1831)도 그중 한 명이었다. 덕분에 키케로의 《국가론》 초판본(Editio princeps)이 1822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빛을 보게 된다. 그리고 많은 논쟁과 논란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² 참조. <https://spotlight.vatlib.it/palimpsests/about/vat-lat-5757-inf>.

가톨릭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 바티칸, 그리고 도서관

무려 6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바티칸 도서관의 역사에 비하면 키케로의 《국가론》이 빛을 보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바티칸 도서관의 역사는 1448년부터 시작되었다. 책을 무척 좋아하던 교황 니콜라오 5세가 가톨릭교를 이끌던 시기로, 그가 이전 교황들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서적과 문서 등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 시초였다. 바티칸 도서관은 교황이 통치하는 독립국으로서의 바티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바티칸은 이탈리아 로마시에 둘러싸인 내륙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 불리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바티칸 도서관의 역사적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도서관 내부 곳곳은 성경의 구절과 성인들의 언행을 담은 벽화들로 장식되어 있으며, 160만 점 이상의 인쇄자료 등을 보유한 도서관이다. 특히 고서 자료실에는 키케로의 《국가론》을 비롯해 가장 오래된 성서 사본으로 알려진 바티칸 성서 사본(Codex Vaticanus)도 보존되고 있다. 이러한 바티칸 도서관의 귀중한 자료들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고해상도 이미지로 열람이 가능하다.

귀중한 문서의 수호천사

키케로의 《국가론》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도 벌어진다. 문헌의 바탕에 깔린 키케로의 문장을 읽어내기 위해 화학제를 사용하여 위에 덧씌워진 문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필사본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키케로의 《국가론》임을 처음 발견했음에도 마이 추기경은 많은 비판과 질타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구원의 손길은 뜻밖의 곳에서 주어



바티칸 도서관 전경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바티칸 도서관 입구. @WalksYourWay

졌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엑스레이의 발견이었다. 화학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바탕에 깔린 필사본을 읽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훨씬 안전하고 뛰어난 판독 기술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중으로 기록된 문서를 ‘팔림프세스트(Palimpsest)’라고 부른다. 이는 “이중으로 기록된 문서” 혹은 “지우고 다시 쓴 문서”의 의미를 뜻하는 그리스어 ‘παλινψηστος’를 음차한 것이다. 어떻게 문서에 문서가 이중으로 기록되었을까. 어찌 보면, 이런 반문명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양피지가 비쌌기 때문이다. 반전은 여기에서부터다. 아이러니하게도 키케로의 《국가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양피지가 비싸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시편 주석》 위에 덧씌워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속 문헌이라는 취급을 받아야 했지만, 그것이 비싼 양피지에 적혀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시편 주석》이 자의든 타의든 키케로의 《국가론》의 수호천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위대한 원본에 의해 살아남은 책

손톱체(Scriptura Uncialis)로 필사된 키케로의 《국가론》이, 지금처럼 ‘Vat. Lat. 5757’이라는 이름을 얻은 양피지의 원래 주인으로 자리 잡은 것은 서기 4세기 중반이었다. 양피지에 새겨진 원본을 지우고 새로운 글을 필사하면서 많은 원본이 사라지던 시대였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시편》에 대한 목상이 《국가론》의 수호천사 노릇을 하기 시작한 것은 서기 7세기 이후로 추정된다. 신성 문헌이 세속 문헌을 지키는, 어찌 보면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벌어진 곳은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위치한 보비오(Bobbio) 수도원이었다. 보비오는 아일랜드 출신의 사제였던 성 골롬반(St. Columban, 543?~615)이 세운 수도원이다. 이는 과연 우연일까?

어쩌면 키케로가 “정의를 논의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불멸의 정신들이 자리하는 신성한 거처와 하나의 비밀을 자신의 작품의 정상에 올려놓고, 이성, 정의, 용기, 절제로 국가를 책임졌던 사람들은 이곳으로 가야 하고, 아니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그 작품이 바로 《국가론》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

키케로의 《국가론》을 보유한 바티칸 도서관은?

도서관명(영문)	Vatican Library
구분	공공도서관
개관 연도	1475년
도시	이탈리아 바티칸시국 바티칸시티
주소	Cortile del Belvedere V-00120 Vatican City
전화	39-06698-79411
시설현황	인쇄 도서 자료실, 필사본 자료실, 필사본 참고문헌 자료실, 정기간행물 자료실
이용시간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20분 (주말 외 휴관일은 홈페이지 참조)
특징	역사·법률·철학·과학·신학을 위한 연구 도서관, 시스티나 홀의 천장 프레스코화



안재원
서울대학교 언어학 학사와 동 대학원 서양고전학 석사를 취득한 후 독일 괴팅겐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양고전문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저서로는 《고전의 힘, 그 역사를 읽다》, 《인문의 재발견》 등 다수가 있다.



뉴노멀 시대의 지속 가능한 도서관 서비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를 대변하고 있다. 주로 ‘새로운 경제적 기준’을 뜻하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새로운 표준’이라는 개념으로 도서관에도 적용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도서관에서 실시한 비대면 서비스 중 일부가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발전하였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도서관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을 대학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글 이지욱(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팀 사서) 사진 각 대학교도서관

온·오프라인 북 큐레이션-소장 자원 이용 활성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도서관으로의 발걸음은 잠시 제한되었다. 이용자들의 물리적인 접근 제한이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도서관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활성화했고 소장 자원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기존의 추천 자료, 최신 자료와 함께 특정 주제별 도서, 주요 이슈와 관련한 자료를 소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특화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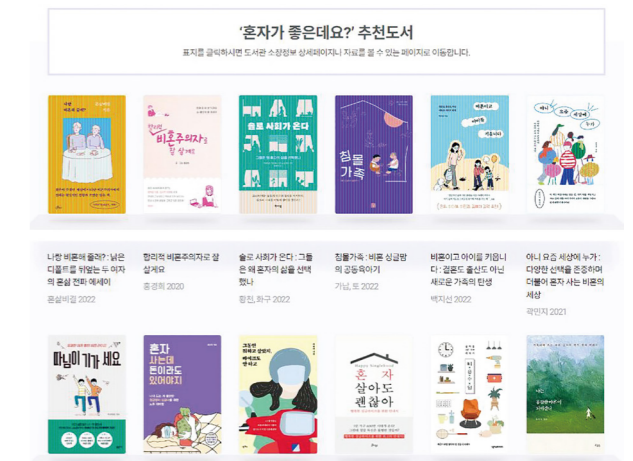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여 온·오프라인 북 큐레이션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한 서비스이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더욱 확대한 분야이다. 온라인 북 큐레이션 코너에서는 주제에 맞는 도서를 추천하고, 카드 뉴스를 통해 추천 도서를 미리 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북 큐레이션과 관련한 이벤트(한 줄 평, 이용자 추천 도서, 추천 작가 등), 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이용자 참여형 큐레이션’으로 발전시켜 소장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라졌지만, 도서관의 온·오프라인 북 큐레이션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정 주제, 최신 이슈와 연계한 단행본, 잡지(기사), 논문, 소장 DVD 등을 다양한 방식(카드 뉴스, 짧은 영상 등)으로 안내함으로써 도서관의 자료 이용이 더욱 활발해진 것이다.

부산대학교 북 큐레이션 전시



추천도서 카드뉴스



부산대학교 북 큐레이션

따로 또 같이-스마트 & 온택트(On tact) 도서관

코로나19는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을 앞당겼다고도 할 수 있다. 도서관을 전면 폐쇄했을 때, 도서관은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하여 365일 언제나 도서를 대출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또한 1인 학습 공간, 오픈형 열람 공간 등의 공간 개편으로 학습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송실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송실스퀘어 ON’이라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1인 좌석을 설치하고 온라인 접속(온택트)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편한 것이다. 또한 개별적인 독립 공간은 물론 개방된 공간에서 협업할 수 있는 오픈형 열람 공간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였다.

코로나19로 비대면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에게 스마트 시스템과 온택트 시설은 이제 빠질 수 없는 서비스가 되었다. 도서관 개방 시간과 상관없이 예약 도서를 간편하게 언제든지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학습 트렌드 변화에 맞춘 열람 환경 개편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도서관 방문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승실대학교 '승실스퀘어 ON'의 내부 모습



한성대학교 도서관이 운영하는 메타버스 도서관 '한성 북니버스'

블렌디드 교육·문화 프로그램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온·오프라인 학습을 결합한 학습 방법)이란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수업이 증가함에 따라 생겨난 용어이다. 팬데믹 이후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칭한다. 기존의 도서관 프로그램을 떠올려보면 이용자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 활용 교육을 듣고, 독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이용자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한성대학교 도서관은 메타버스 도서관 '한성 북니버스'를 운영하며 도서 추천, 독서 클럽 모임 등의 온라인 프로그램과 함께 오프라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의 전자 정보 활용법을 소개하는 행사인 전자정보박람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와 같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의 도서관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현재진행형이며 이용자들 또한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다.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도서관의 교육, 특강 기획

은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병행한 뉴노멀 시대는 도서관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다. 동시에 최근에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며 도서관에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AI 챗봇을 활용해 간편하게 도서를 추천받을 수 있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정보 활용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첨단 도서관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❶



이지욱
현재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팀 사서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대학신문》을 비롯해 다수의 매체에서 도서관에 대한 칼럼을 연재했다.

34 문헌의 가치
미국인 부부의 기증 자료 재발견

38 문학상 읽기
슬픔과 고통,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목소리
루이즈 글릭의 《아생 붓꽃》

42 나를 바꾸는 독서
문유석 《판사유감》
판사의 마음, 법의 감정, 제도의 민주주의

46 숫자로 보는 테마 랭킹
다독을 결심하게 되는 1월, 어떤 책이 많이 대출됐을까?
'최근 3년간 1월 인기 도서 분석'

48 똑똑한 독서 생활
읽고 싶은 그 책, 어떻게 찾을까?
청구기호와 똑똑한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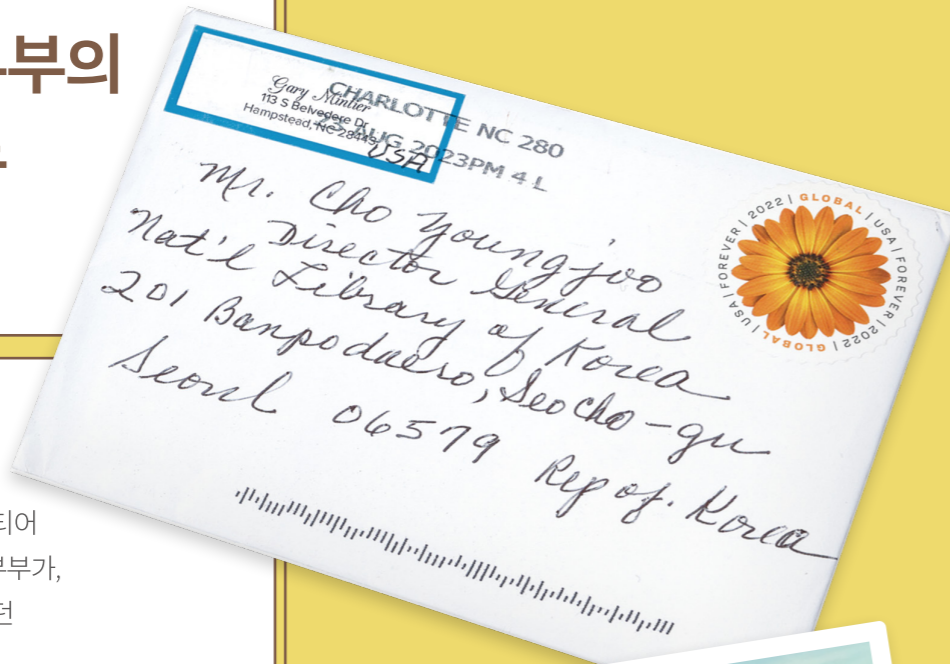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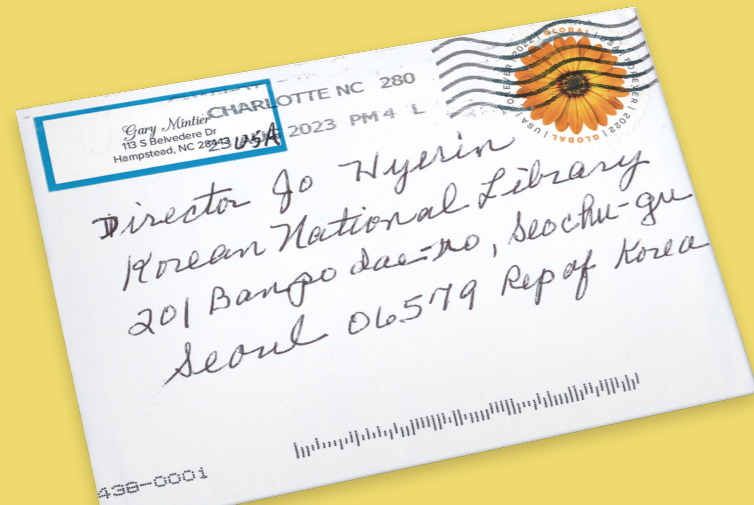


서재를 견다

미국인 부부의 기증 자료 재발견

게리 에드워드
민티어(Gary Edward
Mintier)와 메리 앤 민티어
(Mary Ann Mintier) 부부가,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던
한국 문화재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처음 전달한 것은
2021년 6월이었다.
이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우리
관으로 최종 인수되기까지는 3년의
시간이 걸렸다. 50여 년 만에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온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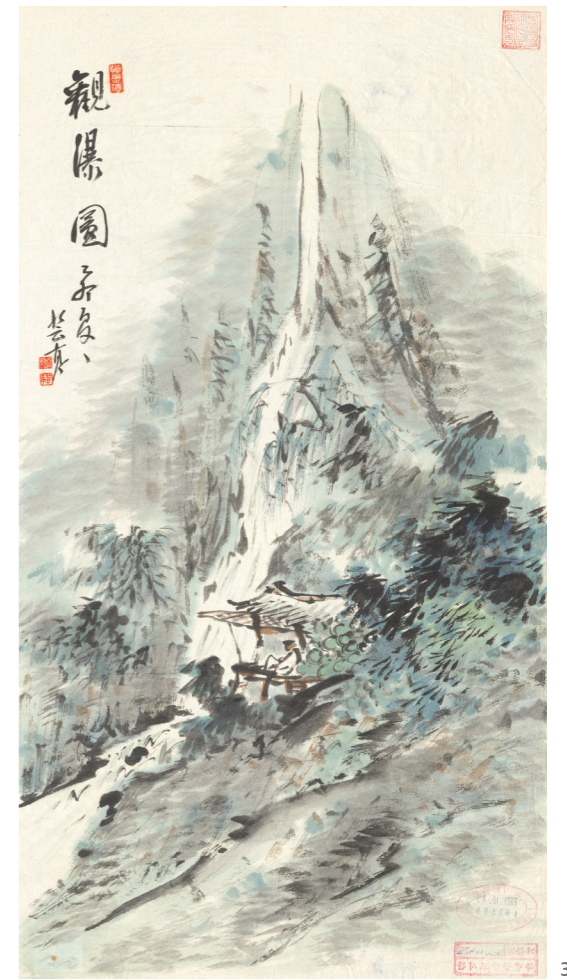
글 김효경(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한국 문화유산에 매료된 미국인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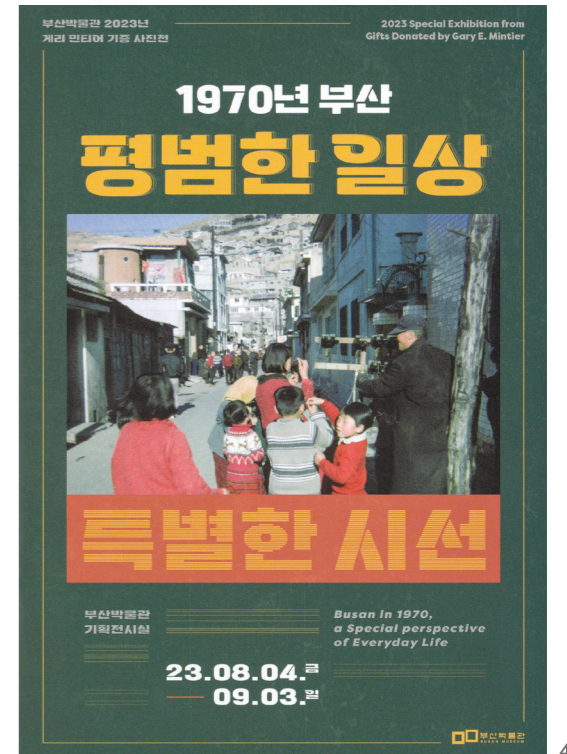
민티어 선생 부부는 1969년 평화봉사단(Peace Corps)의 일원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6년여 동안 서울, 부산에 거주하며 영어 강사 등의 활동을 하였다. 한국에 사는 동안 한국의 문화유산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스승인 정완섭(鄭完燮, 1922~1978) 화백의 도움을 받아 인사동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근현대 서화와 고서 등을 수집하였다. 부산에 거주할 때는 1970년대 부산의 여러 유적지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사진으로 담아 기록해 놓기도 하였다.¹⁾

기증 자료를 인수받기에 앞서 2022년 7월 27일 민티어 선생 부부의 자택을 방문하였을 때 거실, 방과 방 사이의 복도에는 서화류, 도자기, 목판, 토기 등이 즐비하여 그야말로 한국의 고택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특히 거실 벽에 걸려 있는 서화를 하나씩 걸어 내릴 때마다 50년 이상 함께해 온 소중한 물건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마음에 결국 눈물을 흘리던 민티어 선생 부부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거실 한편에 걸린, 결혼 1주년을 맞이한 이들 부부를 위해 1969년 여름 서예가 청남(靑南) 오제봉(吳濟峰, 1908~1991) 선생이 “원앙지교경 비파지상화(鴛鴦之交頸 琵琶之相和)”²⁾라고 써 준 글귀의 액자가 이들 부부의 한국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상상하게 했다. 게리 에드워드 민티어는 ‘민기수(閔基洙)’, 메리 앤 민티어는 ‘민미란(閔美蘭)’이라고 적힌 액자의 한국 이름이 너무 정겨웠다.



- 1 게리 민티어 선생의 감사 서신
- 2 민티어 선생 부부의 모습(2022년 7월)
- 3 1975년 정완섭 화백이 직접 그려서 선물한 <관폭도>
- 4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부산박물관에서 개최한 전시 팸플릿

- 1 민티어 부부가 부산에 살면서 찍은 사진 1,366점이 2023년 봄 부산박물관에 기증되었고, 2023년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1970년 부산, 평범한 일상 특별한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되었다.
- 2 부부 사이의 다정하고 화목한 즐거움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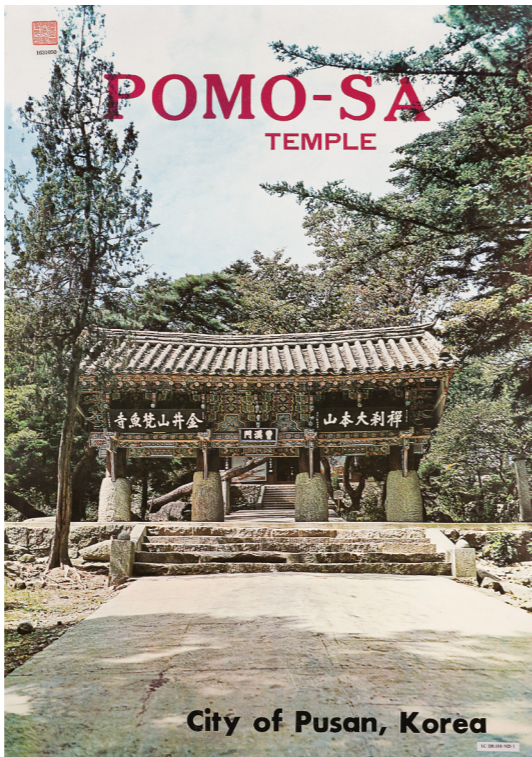


한국 생활의 추억이 깃든 자료들

민티어 선생 부부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한 자료는 총 150책(점)이다. 이 중 고문헌은 120점이고 일반 단행본 도서와 포스터는 30점이다. 일반 자료 속에는 1969년, 1970년, 1972년 한국 평화봉사단 시절의 편람과 활동 안내 팸플릿, 서울의 창경원과 창경궁 관광 안내 책자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민티어 선생 부부는 부산에 살 때 범어사 사찰은 물론 부산 일대를 자주 여행 다녔는데, 1970년 ‘범어사 안내 포스터’, ‘영문 부산 관광지도’도 간직하고 있다가 기증하였다.

고문헌 속에는 서화가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자료를 살펴보면, 조선 후기 화가 송수면(宋修勉, 1847~1916)의 매화와 대나무 그림 7폭을 비롯해서 취당(翠堂) 홍순인(洪淳仁, 1888~1962)의 산수화, 이방자(李方子, 1901~1989) 여사의 난초 그림, 일본 화가 쓰키오카 세테이(月岡雪鼎, 1726~1787)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일본여인도〉가 있다. 그 밖에 서예 글씨, 초상화, 민화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작품이 송수면의 대나무 그림 2점과 매화 그림 5점이다. 송수면의 자는 안여(顔汝), 호는 사호(沙湖)이고, 만년에는 노호(老湖)라 하였다.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현재의 남면) 사평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일생을 보냈다. 부친은 순조 대에 감역 벼슬을 지냈고, 아들 송대회(宋大會, 1882~1975)는 호가 매사(梅沙)로, 그도 그림에 일가견이 있었다.³ 그뿐 아니라 형 송공면(宋兢勉, 1839~1922)의 아들 송엄재(宋念齋)와 송태회(宋泰會, 1872~1941), 보성에 거주하였던 문인 소파(小坡) 송명회(宋明會, 1872~1953), 서예가 설주(雪舟) 송운회(宋運會, 1874~1965) 등 시서화로 이름난 문인들을 다수 배출한 가문 출신이다.



5

송수면 그림과 《춘추집주(春秋集註)》 목판

송수면의 조카 송태회는 “작은아버지 송수면은 천성이 깨끗하여 세상에 간여하지 않았고, 세상에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며, 작품 또한 많이 전하지 않는다” 하였는데⁴, 집안에 내려오던 서화 작품을 6·25전쟁 때 모두 잃어버렸다고 한다.⁵ 1917년 오세창(吳世昌)이 역대 서화가의 사적과 평전을 수록 편집한 《근역서화징(槿域書畫徵)》에는 송수면이 대나무를 잘 그렸다고 기록되어 있다.⁶

대나무 그림(사진 6)은 화면 하단에 여러 개의 괴석을 세우고 괴석의 앞뒤로 솟아오르는 대나무 줄기를 화면에 펼쳐놓았다. 줄기는

5 범어사 안내 포스터(1970년)

3 礪山宋氏大同譜刊行會編, 《礪山宋氏大同譜》卷之十三(礪山宋氏大同譜刊行會, 1989, 347쪽).

4 “余從父天性狷介, 不干於時教, 世無知者, 墨蹟亦未多傳.”(宋泰會, 《念齋遺稿》권3, 58쪽).

5 李仙玉, 〈沙湖宋修勉(1847~1916)의 繪畫世界〉(《美術史學報》제8집, 2007, 35~62쪽).

6 “字 顔汝 號沙湖 礪山人 憲宗十三年丁未生 進士 居同福 畫長於竹”(《槿域書畫徵》, 啓明俱樂部, 1928, 259쪽).

중간중간 꺾이듯 방향을 틀고, 앞은 마디에서 자라난 새로운 잔가지에 큰 잎과 잔잎을 복잡하게 배치하였다. 화면 하단 큰 대나무들 뒤로 비스듬하게 자란 작은 가지 하나가 연한 먹으로 처리되어, 원근감을 보여주고 있다. 상단 중앙에는 화제(畫題)와 ‘沙湖’라는 낙관이 찍혀 있다. 매화 그림(사진 7)은 기이하게 자란 오래된 나무 등걸에 여기저기 새로운 가지가 자라면서 꽃을 피우고 있다. 아래쪽을 향하여 자라는 가지, 위를 향하여 자라는 가지가 화면에 안정감과 상승감을 부여하고 있다. 좌측 상단에 역시 화제와 ‘宋修勉’ 낙관이 자리하고 있다.

또 기증 자료 중 눈에 띄는 것은 조선시대 《춘추집주(春秋集註)》 목판 1점이다. 이 자료는 조선 후기 학자인 이유장(李惟樺, 1625~1701)이 편찬한 《춘추집주》를 나무에 새긴 책판으로 권2의 45, 46장 내용을 담고 있다. 《춘추집주》는 《춘추》주석서인 《춘추좌씨전》, 《춘추곡량전》, 《춘추공양전》과 여러 사람들의 해설 가운데 요점만 취하여 편찬한 책이다. 우리 도서관에는 이 목판으로 찍은 《춘추집주(春秋集註)》가 소장되어 있지 않아 비교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현재 본 목판과 동일한 것이 국내에는 한국국학진흥원, 국외에는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남아 있다. 목판의 권번호가 타 기관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미공개 자료이자 희소가치가 높다.

50여 년 전 한국 사람들에게 듬뿍 받은 정과 행복했던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해 온 민티어 선생 부부는, 한국에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의 하나로 자신들이 공들여서 수집하고 아꼈던 자료를 돌려줄 결심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한국 문화재를 대한민국에 아낌없이 기증해 주신 민티어 선생 부부의 아름답고 용기 있는 결정에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6



7



8

6 송수면의 〈목죽도〉

7 송수면의 〈목매도〉

8 《춘추집주》 목판

슬픔과 고통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목소리 루이즈 글릭의 《야생 붓꽃》

《야생 붓꽃》은 풀리처상을 받은 시집으로 노벨상 수상자인 루이즈 글릭의 대표작이다. 이 시집은 식물, 인간, 신의 목소리를 통해 모든 존재가 겪는 고통과 불행을 얘기한다. 하지만 슬픔과 분노에 머물지 않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통해 희망을 찾아가는 구도자적 태도를 잃지 않고 있다.

글 황정산(시인·문학평론가) 사진 출판사, 위키미디어

Louise

《야생 붓꽃》의 루이즈 글릭은 누구일까

“21세기 최초 노벨상 수상 여성 작가”, “풀리처상, 전미도서상에 빛나는 미국의 계관시인”, “노벨상을 수상한 두 번째 여성 시인”. 이 모두는 202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여성 시인 루이즈 글릭을 수식하는 말들이다. 매년 여러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Kungl Vetenskaps Akademien, KVA)은 “꾸밈없는 아름다움을 갖춘 확고한 시적 목소리로 개인의 실존을 보편적으로 나타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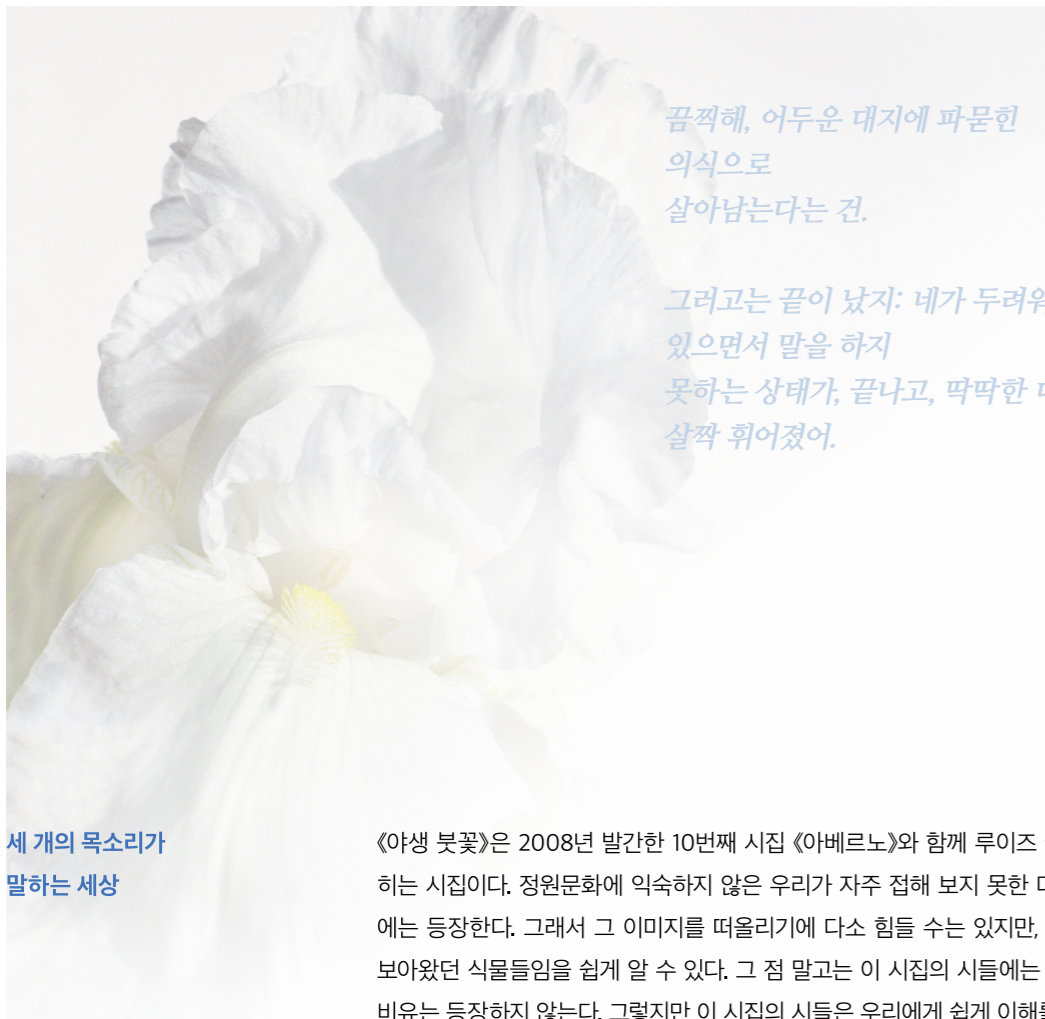
헝가리게 유대인 이민자인 부모님 사이에서 그는 1943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관심을 가졌지만 청소년기 거식증과 우울증 등을 겪으며 학교를 중퇴하고 7년여간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첫 시집 《만이(Firstborn)》를 출간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우울과 고통의 기억이 다른 존재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그의 문학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후 그는 1985년 《아킬레우스의 승리》로 전미비평가상을, 1993년 《야생 붓꽃》으로 풀리처상을, 2014년 《독실하고 고결한 방》으로 전미도서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리고 2020년에 마침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에 이른다. 여성 시인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은 1996년 폴란드의 비스와 바 심보르스카 이후 두 번째이다. 12권의 시집을 남긴 그는 작년 10월 안타깝게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1 노벨상 메달
- 2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

Gluck



꿈쩍해, 어두운 대지에 파묻힌
의식으로
살아남는다는 건.

그러고는 끝이 났지: 네가 두려워하는 것, 영혼으로
있으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끝나고, 딱딱한 대지가
살짝 휘어졌어.

세 개의 목소리가 말하는 세상

《야생 붓꽃》은 2008년 발간한 10번째 시집 《아베르노》와 함께 루이즈 글릭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시집이다. 정원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자주 접해 보지 못한 다양한 식물들이 이 시집에는 등장한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떠올리기에 다소 힘들 수는 있지만, 검색을 해보면 어디선가 보아왔던 식물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점 말고는 이 시집의 시들에는 어려운 시어나 까다로운 비유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시집의 시들은 우리에게 쉽게 이해를 허락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집의 시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흔히 ‘페르소나’라고 해서 시인들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목소리를 가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국 시인의 목소리이다. 그런데 《야생 붓꽃》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는 이와는 다르다. 이 시집에는 세 개의 목소리가 등장한다. 식물들의 목소리, 신의 목소리, 그리고 시인 자신인 인간의 목소리이다. 이 세 개의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면 시들을 이해할 수 없다. 시들을 읽으면서 누구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시집의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흥미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꿈쩍해, 어두운 대지에 파묻힌 / 의식으로 / 살아남는다는 건. // 그러고는 끝이 났지: 네가 두려워하는 것 영혼으로 / 있으면서 말을 하지 / 못하는 상태가, 갑자기 끝나고, 딱딱한 대지가 / 살짝 휘어졌어.”(《야생 붓꽃》 부분)는 야생 붓꽃이라는 식물의 목소리를 보여준다. 자신의 꿈쩍한 상태의 두려움을 인간인 시인에게 토로하고 있다. 이 점을 이해하고 이 시를 읽으면 시인이 어떤 태도로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내 어떻게 도와줄까, 너희들 모두 / 다른 걸 원하는데-햇빛과 그늘, / 습한 어둠, 메마른 열기- // 서로 다투고 있는 너희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봐-”(《한여름》 부분)와 같은 구절은 신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이 시에서는 신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고통과 갈등을 얘기하고 있다. 또한 <아침 기도> 일곱 편과 <저녁 기도> 열 편은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목소리, 즉 인간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시인은 이 열일곱 번의 기도를 통해 현실에서 확인하는 신의 부재와 침묵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신에게 지혜와 희망을 간구한다.

고통과 불행을 넘어서는 희망의 언어

루이즈 글릭의 《야생 붓꽃》의 시들은 고통과 불행의 세계를 보여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불행의 징후들이 난무하고 있다. 시인은 식물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 불행을 마주하지 못하는 인간의 허위와 어리석음을 깨우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편재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 위에서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깨닫게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시인은 때론 나직하게 읊조리고 때로는 신랄하게 토로하는 식물들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준다.

신 역시 이 불행을 어찌지 못한다. 인간들이 부여한 이미지만으로 신은 지쳐 있고, 자신이 부여한 선물마저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인간의 우매함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야생 붓꽃》의 시들에 등장하는 신의 목소리에는 이런 실망감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든 고통에 신까지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시인은 기도를 통해 이 모든 고통과 불행, 질곡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 시집의 가장 큰 진정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불행한 존재들의 목소리를 말하고, 또 듣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어느 한편에 엄연히 존재하는 희망과 구원의 빛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아가려는 구도자적 열망이 이 시집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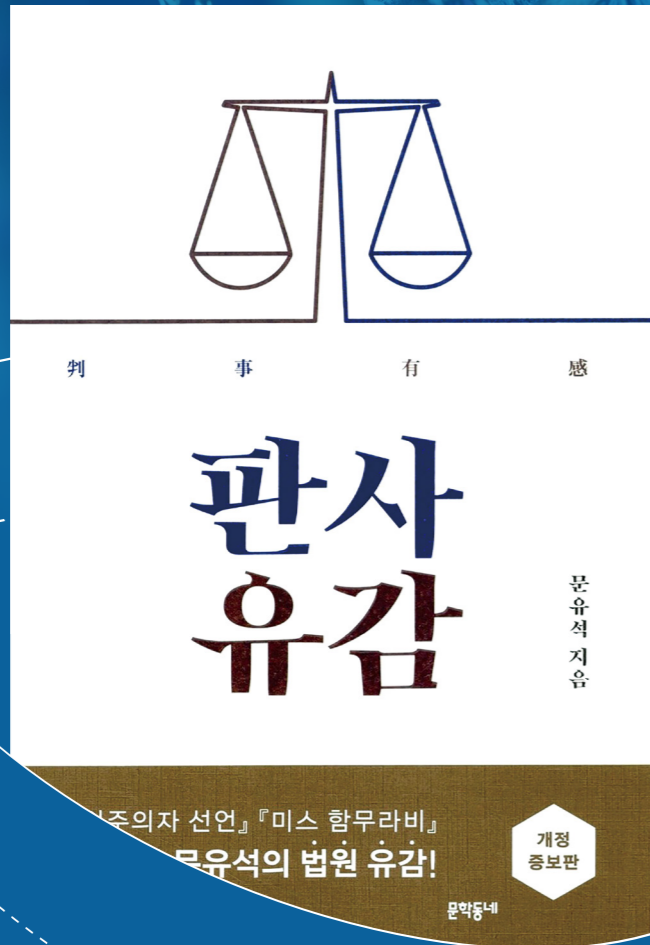
이 시집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나와 타자, 그리고 이 모드를 엮어내고 있는 세상의 불행과 고통을 다시 돌아보고, 무엇이 우리를 더 나은 가치의 세계로 한 발 나아가게 하는지를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❸



황정산
1993년 《창작과비평》에서 평론 활동을 시작했다. 2002년 《정신과표현》에 시를 발표했고, 저서로는 《주변에서 글쓰기》, 《쉽게 쓴 문학의 이해》, 《소수자의 시 읽기》 등이 있다. 현재 계간 《상상인》 주간으로 활동 중이다.

3 루이즈 글릭의 《야생 붓꽃》

문유석 《판사유감》 판사의 마음, 법의 감정, 제도의 민주주의



문유석의 《판사유감》은 무슨 일에서든 원칙만 따지고,
다시 말해 무감각할 것 같은 판사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진솔한 고백이다.
대외적인 “무슨 거창한 이유” 없이 그저 재미있어서 썼다는 “판사들의 수다”다.

글 김건형 사진 출판사

판사도 마음이 있나?

어릴 적 부모님의 기대로 뜻도 모르고 써내야 했던 장래 희망란의 ‘판·검사’ 이후로는, 사실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별달리 관심을 기울여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다들 판사란 어딘가에 존재하긴 하지만 내 주변에는 없는, 촉망받는 직업의 대명사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 무섭고 냉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사회적 권위로서 ‘판관’의 기능을 생각하지, 판사라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일은 거의 없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한 판사의 감정은 그저 한 비밀스러운 소수 직종의 세계를, 혹은 법조계 종사자들의 숨겨진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일단 맺어진 계약은 준수해야” 하고 “범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정의로움이 무너지는 순간, 법이 출현한다. 사회적 규칙과 규범이 약속한 평화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에도 마찬가지. 단순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을 초월하는 인간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사정을 법은 언제나 사후적으로 알아차리기 마련이다. 그 간극 사이에 법관이 서 있다. 《판사유감》은 바로 그 위치에서 말한다. 법이라는 추상적인 원칙에 의존하면서도

법이라는 추상적인 원칙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에 균열을 내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법관의 위치에서,
법이 하는 일을 보고
법이 해야 하는 일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한다.



동시에 그 원칙에 균열을 내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법관의 위치에서, 법이 하는 일을 보고 법이 해야 하는 일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한다. 그리고 그 관찰과 고민은 주로 법의 역설을 향한다.

법 감정의 역설

판사로서 문유석이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부득이하게 어려운 위치에 처해 버린, 혹은 필연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법정에 제출된 증거로만 보면 분명 처벌해야 하는 사람이지만 직접 만나 왜 법을 위반하게 되었는지를 묻다 보면 사정은 달라지고 만다. 예를 들어 언론매체에서 보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는 분명 사회적 악이다. 소득이 줄었는데도 종전의 소비를 유지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빚을 갚지 않고 나 몰라라 한다는 식의 서사에는 평범한 시민과 범죄자의 악덕을 분리하려는 의지가 단호하다.

하지만 《판사유감》은 이를 구분하려는 대중적 법 감정이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의 감정을 본다. 빚을 갚지 못한 부모 때문에 자립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한 아이가 도리어 파산 면책 제도가 있으면 “누가 빚을 갚겠어요?”라고 되묻는 역설적인 장면에서도 그러하다. 문유석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으면서도 소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욕심에 대해 면밀히 생각한다. 그리고 그 욕

심에는 대부분 유치원비와 병원비 같은, 가족의 돌봄과 생존에 대한 욕망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가족의 경제위기를 연민하는 한국적 온정주의가 아니다. 여기에서 문유석은 언론의 법적 언어와 대중의 법 감정이 누락하고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이다. 돌봄의 열망을 담보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경쟁해야 한다고 권하던 신용카드 회사나 금융당국의 정책 같은 사회제도가말로 모럴해저드 그 자체가 아니었냐고 되묻는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파산 제도를 남용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이야말로, 사회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감정이라는 역설이지 않느냐고.

제도의 민주주의를 향하여

이 책이 빛나는 지점은, 그렇게 만난 피고인의 답변이 “하도 답답해서 법원 조사관에게 어려운 통계조사를 부탁”하는 대목들이다. 법관 자신의 세심하고 온정적인 판단에 대한 자족감으로 향하기 보다는, 피고인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범죄의 패턴을 알고자 하고, 지금의 법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그렇게 사람을 위해 법이 바뀌어야 한다면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까지 나아간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건에서 법 시행을 둘러싼 엄벌주의와 필벌주의 같은 대중의 법 감정을 자연스럽게 법철학적 논쟁으로 유도해 간다.

이러한 책의 구성은 개별 사건에 대한 정당한 복수가 주는 쾌락에서 멈추지 않고, 법이 사회와 인간을 형성하는 동시에 반대로 사회와 인간을 통해서도 형성된다는 상호적 운동성을 강조한다. 이는 법이 시민을 지배하고 규율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사회를 통치하는 관계 맺음의 방식임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정 기능인들에게 정치를 맡겨버리고 마는 대의제도가 만들어 내는 수동적 관조에서, 제도 자체를 사유하고 관여하는 더 직접적 민주주의에 대한 움직임을 법의 영역에서 예시하는 것이다. 법에 대한 대중과의 대화, 법학 교육에 관한 경험, 사법행정 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중요하게 다룬 것 역시 이 책 스스로 그러한 움직임 속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책에서 문유석은 법 정책적 제언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다만, 법과 제도를 담당하고 이를 다른 인간과 매개하는 직업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 법을 단순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를 끊임없이 갱신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것은 판사로서의 직업 윤리이기도 하고, 제도-정치 그 자체이기도 하다. 법이라는 비인격적 집단 시스템이 작동하고 움직이는 그 동력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제도의 ‘감정 정치’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감정’은 사법의 영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어떤 종류든 규범-제도가 작동하는 영역으로 확장해서 읽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담대한 낙관주의자의 유머

그렇다고 이 책이 단호한 주장이나 통계적 검토로 가득한 것은 아니다. 검허한 자조는 있지만 냉소는 없는 유머를 통해 법이라는 지루한 단어를 생동감 있게 바꾸어내고 있다. 이는 서문에서부터 밝힌 문유석 특유의 문체이자 인간관이기도 한 것 같다. “냉소적으로 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담대하게 낙관주의자가 되라구.” 제도에 대한 무조건적인 냉소와 인간에 대한 막연한 낙관을 넘어, 자신이 마주한 제도를 더 크게 보고 여기에 개입하려는 담대한 낙관을 품은 개개인들로부터 더 많은 민주주의가 온다. ❶



김건형
198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8년 문학동네신인상을 수상하며 평론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현재 계간 《문학동네》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법이 시민을
지배하고 규율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사회를 통치하는
관계 맺음의 방식임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독을 결심하게 되는 1월, 어떤 책이 많이 대출됐을까? ‘최근 3년간 1월 인기 도서 분석’

새해 결심 중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독서’이다.

저마다 독서의 목적은 다르지만, 매해 하는 ‘독서할 결심’을 보면 독서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독서를 향한 그 솔한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짐작해 보고자 최근 3년간 1월 동안의 인기 도서 데이터를 분석해 봤다.

정리 이혜민 자료제공 각 출판사 데이터 출처 도서관 정보나루(data4library.kr)

분석 기간 2021.1.1~2021.1.31. / 2022.1.1~2022.1.31. / 2023.1.1~2023.1.31.(검색 조건: 아동 도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 대상)

2021



아몬드 손원평 지음 | 창비 | 2017

《아몬드》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 윤재가 세상에 걸음을 내딛는 이야기로,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청소년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창비 청소년 문학상, 일본 서점인들이 뽑은 일본 서점 대상 수상작이며 2020년 아마존 베스트 북에 선정됐다.

1 2,796회

《아몬드》
손원평 지음 | 창비 | 2017

2,596회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양윤옥 옮김 | 현대문학 | 2012

2,049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지음 | 허블 | 2019

0 1,000 2,000 3,000 4,000

2022



달려구트 꿈 백화점 이미예 지음 | 팩토리나인 | 2020

《달려구트 꿈 백화점》은 유서 깊은 ‘꿈 백화점’을 무대로 그곳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럽고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그린다. “무의식에서만 존재하는 꿈을 정말 사고팔 수 있을까?”라는 기발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며, 꿈을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판타지 소설이다.

1 3,558회

《달려구트 꿈 백화점》
이미예 지음 | 팩토리나인 | 2020

3,030회

《완전한 행복》
정유정 지음 | 은행나무 | 2021

2,877회

《아몬드》
손원평 지음 | 창비 | 2017

0 1,000 2,000 3,000 4,000

2023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지음 | 나무옆의자 | 2021

《불편한 편의점》은 서울 청파동 골목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을 무대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속내와 희로애락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다 우연한 기회에 편의점에서 일하게 된 한 인물과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편의점을 찾는 이들의 이야기, 그 속에서 지친 하루를 위로하는 편의점의 밤이 열린다.

1 5,005회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지음 | 나무옆의자 | 2021

3,191회

《달려구트 꿈 백화점》
이미예 지음 | 팩토리나인 | 2020

2,929회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지음 | 창비 | 2022

0 1,000 2,000 3,000 4,000 5,000

불안의 시대,
희망 소설로 시작한 1월

최근 3년간 1월 도서 대출 순위를 살펴본 결과, 소설 장르의 인기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결심이나 거창한 다짐을 하기보다 코로나19 이후 불안했던 마음들을 다지고 스스로에게 희망과 위로를 조용히 건넨 듯 보인다. 특히 1위를 차지한 소설들의 배경이 편의점, 백화점 등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상 공간’이라는 점에서, 특별할 것 없다고 느꼈던 일상의 소중함이 간절했던 지난 3년간의 우리를 떠올리게 한다. ㉮

읽고 싶은 그 책, 어떻게 찾을까? 청구기호와 똑똑한 독서

청구기호는 책이 가지는 주소 같은 것이다. 우편물에 찍힌 주소를 보고 집배원이 찾아가듯 우리는 청구기호를 따라 책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사서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청구기호가 자칫 암호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괜찮다. 암호를 해석해야 하는 사서가 아니라면 원하는 책을 찾았을 때의 짜릿함만 느껴도 충분하다.

글 이혜민 **참고도서** 《도서관은 살아 있다》(도서관여행자 지음, 마티, 2022)



도서관이 청구기호를 쓰는 이유

도서관에서 책을 진열하는 방식은 서점과 확연히 다르다. 서점에서는 마치 전시를 하듯 저마다의 기준으로 책을 배치한다. 때에 따라 유행하는 주제나 책의 크기 같은 심미적 요소가 책 정리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덕분에 서점에서는 사고 싶은 책을 검색하더라도 해당 서적이 있는 지점에서 하나하나 책 이름을 찾아보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도서관은 다르다. 해당 도서관의 사서를 중심으로 책은 각각의 서가(=도서관의 책장)에 가지런히 배가(=도서를 제자리에 꽂다)되어 있다. 책마다 청구기호를 부여받아 해당 자리에 꽂혀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청구기호만 있으면 어디서든 쉽게 책을 찾을 수 있다. 서점보다 많은 양의 책을 효율적으로 보유함과 동시에 책을 찾을 이용자와 책을 배가할 사서, 모두에게 이로운 방식이다. 그렇다면 한 책이 가진 청구기호는 도서관마다 같을까? 그렇지 않다. 도서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장서 수나 현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십진분류법에 의해 조합되는 청구기호

한국의 도서관은 대부분 한국십진분류법(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에 따라 주제를 열 가지로 구분하고 책을 배가한다. 한국십진분류법은 서구의 도서 분류법인 듀이십진분류법(Dewey Decimal Classification, DDC)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편찬한 것이다. 듀이십진분류법은 언어를 400에 두지만 한국십진분류법은 언어를 700에 두는 등의 차이점이 있다.

국내외 도서 분류 체계의 근간이 되는 도서십진분류법은 미국의 교육자이자 사서였던 멜빌 듀이(Melvil Dewey, 1851~1931)가 1876년 처음 만들었다. 듀이 또한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의 학문 분류 개념을 바탕으로 도서십진분류법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이컨은 책을 역사, 시, 철학의 세 분류로 구분하는 분류법을 제안하고 이 대분류에 따라 다양한 소분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대학 도서관에서는 DDC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에서는 주로 KDC를 사용하고 있다.



암호 해독 대신 서가를 서성이는 설렘을

도서관은 열 개의 분야가 체계적으로 범주화되어 있어 비슷한 주제의 책은 서로 가까이 정렬되어 있다. 그러므로 책을 찾고자 하는 이용자는 ①보고 싶은 책의 청구기호를 출력해 ②청구기호의 앞부분부터 살피며 ③기호가 달라지는 곳까지 순차적으로 비교해 책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서가를 서성이다 보면 찾고자 하는 책 외에도 비슷한 책을 여러 권 발견하는 횡재를 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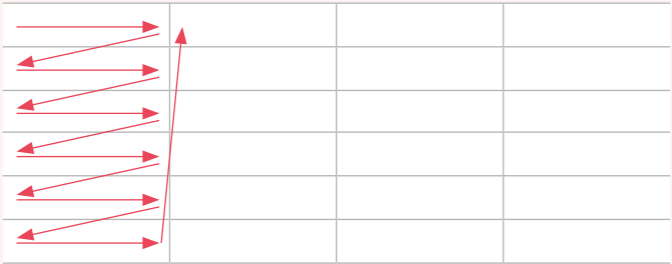
물론 책등에 서너 줄로 되어 있는 청구기호는 해당 부분마다 의미하는 바가 있다. 별치 기호, 분류 기호, 도서 기호, 부차적 기호, 이렇게 네 개의 요소로 구성되지만 모두 책의 체계적 배가를 위한 정보다.

<청구기호의 구성 요소>

청구기호	구분	특징	비교 방법
아	별치 기호	별도 관리가 필요한 자료에 부여	-
① → 182.3	분류 기호	한국십진분류법에 속하는 범주를 나타냄	숫자의 크기를 비교한다.
② → 그24ㅁ	도서 기호	저자명을 기호화하고, 도서관에 들어온 순서 등을 의미	한글 자모 순서를 비교한다.
v.2	부차적 기호	권호, 복본 유무 등을 의미	-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청구기호의 ①과 ② 부분을 비교할 수 있으면 된다. 대개 ①은 소수점이 있는 숫자이며, ②는 글자+숫자+글자로 구성된다. 이용자는 청구기호를 볼 때 ①을 소수점이 있는 숫자로 보고 그 크기를 비교해야 한다. ②에서는 한글의 자모 순서를 비교해 가며 기억나온디글순, 혹은 가나다순으로 책을 찾는다. 서가의 배열 순서는 다음 그림과 같다. 열마다 배열되어 있으므로 화살표 순서대로 원하는 책을 찾는다.

<배열 순서>



마지막으로 자주 가는 도서관이 있다면 관심 분야의 책 위치를 외워두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잘못 배가된 책은 다시 찾기 어려우므로, 한번 빼서 본 책을 제자리에 둘 자신이 없다면 따로 마련된 반납처에 두기를 추천한다. ❸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59 한 장의 감성



함께 나누다

국립중앙도서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과제 선정



국립중앙도서관 전경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민의 지식생산과 문화향유를 위한 지식정보 제공'을 목표로 2024년 총 11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 K-콘텐츠의 수집과 제공 강화, ▲ 독서문화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 도서관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K-콘텐츠 수집과 제공 강화

우선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도서관 자료 이외에 웹툰·웹소설·동영상·AR/VR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발굴과 수집을 강화한다. 국내외 공공도메인에 공개되어 있는 온라인 K-콘텐츠 4.4만 건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새로운 콘텐츠 창작에 활용되도록 제공한다.

또한 전국의 문화예술기관이 소장한 지식문화유산은 디지털화하여 공유하는 코리안메모리*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창작과 연구의 원천자료로 제공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새로 구축된 코리안메모리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료 4만 건과 디지털컬렉션 18종이 신규로 제공될 예정이다.

* 코리안메모리: 전국 문화예술기관(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이 소장한 지식문화유산 디지털화 및 공유 서비스.
2023년 말 기준 122개관 참여

▲ 독서문화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독서문화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정보사각지대에 있는 유아(18개월 이하) 양육 수용자와 수용자 자녀*에게 도서를 지원하고, 학교와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소년보호기관**과 협력하여 책구러미 제공과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7,812명 / 미성년 자녀 1만 1,972명 (2023년 법무부)

** 소년원(10), 분류심사원(1), 자립생활관(8), 창업비전센터(2)

초거대 AI 확산과 변화하는 현장 수요에 따라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한다. 우선 인공지능 기술 윤리 교육과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창작 등 총 6개의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디지털 시민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기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숏폼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신설, 수준별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전자책 제작과 영상편집 교육과정 증설 등 총 33개 과정 119회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 도서관에서 문화향유 기회 확대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대표도서관을 지향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장서를 매개로 한 전시, 음악회 등을 통해 국가 지식유산과 새롭게 만나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한국문학관과의 공동전시(3월)를 시작으로 대사관·문화원과의 공동전시 등 다양한 주제의 국가장서를 선보일 기획전시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에서 배우는 인문학' 강연(12회)을 통해 독서문화의 진흥과 인문 가치를 확산하고, 도서관 콘서트(본관),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문의 기획총괄과 02-590-0795

기관 협력 도서관 데이터 서비스
워크숍 개최



기관 협력 도서관 데이터 서비스 워크숍 참가자

국립중앙도서관은 2023년 12월 15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기관 협력 도서관 데이터 서비스'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소개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기관 협력 도서관 데이터 서비스' 프로젝트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대학의 수업 및 연구 활동에 활용하여 새로운 데이터 세트를 개발하고 이를 데이터 서비스에 다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 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문헌정보학 전공) 두 개 기관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2023년 2학기 석박사과정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수업을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마이닝 및 시각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6명의 석박사과정 학생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공 및 분석된 데이터 결과물과 유의미한 시사점에 대해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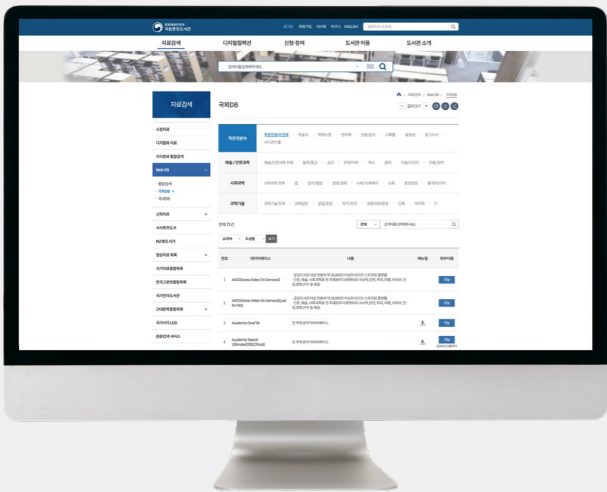
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문헌정보학 전공)의 학술 소모임인 '문화빅데이터팀'은 2023년 1년 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 LOD(Linked Open Data), 지역문학관, 지리 데이터를 융합하여 우리나라 문학작품의 작가 출생지, 작품 속 배경지, 해당 지역 유배문학, 관련 지역 문학관 정보 등을 보여주는 '문학작품 배경지도'를 웹에 구현하여 소개하였다. 본 워크숍의 결과물은 국립중앙도서관 미래공방(NLK Labs) 웹사이트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 '기관 협력 도서관 데이터 서비스' 프로젝트 결과물 목록

프로젝트 결과물명	활용 데이터	참가자
경세유표 메시지 분석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자료 원문 DB '한국고전백서' 《경세유표》 원문	김민주(숙명여자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 추천도서 분석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 추천 글 1,248건 (2010~2023년)	김수연(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의 출판 및 연구 동향 분석	국립중앙도서관 Open API 활용 서지 데이터 1만 2,992권	박선희(숙명여자대학교)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 정책 키워드 비교분석	국립중앙도서관 현대 간행물 OCR 원문 11권	이다현(숙명여자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 업무 변화 분석(코로나 전·후 비교)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원문(2017~2023년)	이예지(숙명여자대학교)
2014~2023년 국립중앙도서관 주요업무계획 분석	국립중앙도서관 주요 업무 계획 원문(2014~2023년)	이유화 (숙명여자대학교)
문학작품 배경지도	대한민국 국가서지 LOD, 지역문학관 데이터, 지리 데이터	노경빈, 이호영, 박선우, 정서린 (한성대학교 문화빅데이터팀)

문의 디지털정보기획과 02-590-6225

학술정보와 문화예술 콘텐츠
무료 제공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2024년 1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외 Web DB 목록 65종을 공개한다. 연구자들의 학술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 콘텐츠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서관은 매년 이용자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추천 등을 거쳐 학술·전문 DB와 문화예술 특화 DB 구축 목록을 시의성 있게 반영해 서비스하고 있다.

먼저 학술·전문 DB는 지난해 대비 한국학, 통계, 법률 정보, 국제 이슈 분야를 강화하여 EBSCOhost Ultimate Package, ISO Complete 등 총 48종을 서비스한다. 또한 문화예술 특화 DB 17종도 선보여 국민 누구나 브로드웨이 뮤지컬, 베를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실황 공연 등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집에서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제공되는 Web DB는 도서관 누리집(nl.go.kr>자료검색>Web DB)에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지식정보서비스과 02-590-0581

칠레센트럴대학교
한국자료실 개관



한국자료실

국립중앙도서관은 1월 16일(화), 칠레센트럴대학교(Universidad Central de Chile)에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을 개관하였다. 개관 행사에는 김학재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 산티아고 곤잘레스(Santiago Gonzalez) 칠레센트럴대학교 총장, 파트리시오 실바(Patricio Silva) 칠레센트럴대학교 이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부터 아시아, 유럽, 중동 등 28개국 33개 주요 도서관에 한국자료실을 설치하여, 약 13만 책의 한국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한국 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개관한 칠레센트럴대학교 한국자료실은 전 세계 34번째 해외 한국자료실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한국 역사, 문화, 언어 관련 자료 등 1,607 책(점)이 비치된다. 특히 자료실 내에 한국 전통 문양의 미달이문과 좌식 책상을 갖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한국의 전통을 직접 체험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

문의 국제교류홍보팀 02-590-6327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가상현실 전래동화 ‘체험형 동화구연’ 신규 콘텐츠 보급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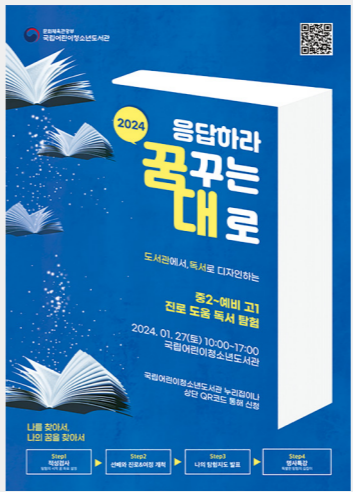


체험하는 어린이들 모습<<장화 신은 고양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월 12일(금) 체험형 동화구연 신규 콘텐츠 5종을 공개했다. 체험형 동화구연은 어린이들이 대형 스크린 속 동화의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협력하여 2009년부터 꾸준히 개발해 오고 있으며, 운영을 희망하는 전국의 도서관에 보급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콘텐츠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전래동화와 명작 동화를 기반으로 가상현실 기술을 반영하여 개발한 ▲〈토끼의 재판〉, ▲〈개와 고양이〉, ▲〈요술 항아리〉, ▲〈아기 돼지 삼형제〉, ▲〈장화 신은 고양이〉 총 5종이다. 다양한 보조 기기를 활용하여 보다 입체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02-3413-483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24년 ‘응답하라! 꿈꾸는 대로’ 진로 캠프 개최



‘2024 응답하라! 꿈꾸는 대로’ 포스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 응답하라! 꿈꾸는 대로’ 진로 캠프를 1월 27일(토)에 개최하였다.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하고 싶은 예비 중2에서 예비 고1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독서를 통한 자신의 꿈을 탐색하고자 이 캠프를 마련하였다. 2024년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로 도서관 수요조사와 선정을 거쳐 총 5회에 걸쳐 진로 캠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캠프는 나의 꿈과 적성이 무엇인지, 또는 꿈은 있지만 어떻게 나의 꿈을 구체화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독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나의 꿈을 찾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 적성검사를 통해 꿈의 좌표를 설정 ▲ 대학생 멘토와 함께 도서관 탐방 ▲ 진로 여정 지도 그리기 ▲ 나의 꿈과 나의 진로 나누기 ▲ 자신의 분야에서 꿈을 이룬 명사들의 특강 등으로 진행되었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73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자출판물 내 특수문자 독음 방법 표준 제정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장애인에게 특수문자에 대한 정확한 음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문자를 읽는 방법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도서관 누리집에 기술 기호, 단위 기호, 로마숫자 등 총 819개 특수문자 유니코드*의 한글 독음을 1월 16일(화)부터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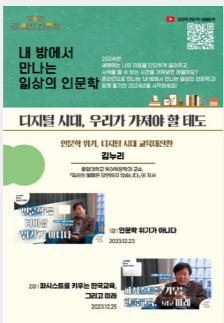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제정한 표준에는 유니코드 정보와 명칭뿐 아니라, 같은 특수기호라도 단어와 문장에서의 읽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독 읽기’, ‘문장 읽기’를 구분하여 장애인에게 정확한 한글 독음 정보를 제공한다. 표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내 연구정보의 표준 코너에서 원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 유니코드(Unicode): 전 세계의 모든 문자에 고유 숫자를 부여하여 만든 문자 체계

■ 모양의 구분이 어려워 가장 많이 틀리는 문장부호 예시

- U+002D: - (볼임표)
- U+2015: — (줄표)
- U+FF0D: - (빼기)
- U+00B7: · (가운뎃점)
- U+318D: · (한글 모음 아래아)
- U+2022: • (구분 기호 볼릿)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온라인 강연 콘텐츠 무료 배포



(출처: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누리집)

한국도서관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3 내 방에서 만나는 일상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총 20개의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온라인 강연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한다.

2013년 시작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도서관의 인력과 공간을 활용해 독서·토론·탐방을 연계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인문 향유 기회 확대 및 생활 속 인문 정신문화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시작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도서관을 넘어 가치 있는 만남의 장을 온라인으로 옮긴 ‘내 방에서 만나는 일상의 인문학’ 강연들을 통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인문학을 향유하고,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해 대국민 인문학 공감대 확산과 소양 함양을 지속하고자 한다. ‘2023 내 방에서 만나는 일상의 인문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식 누리집(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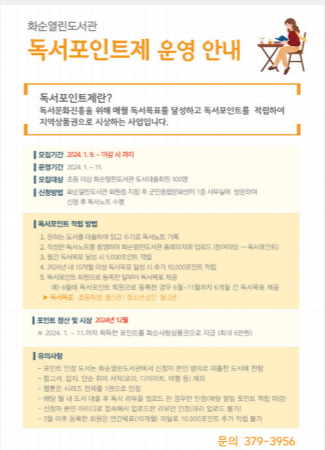
종로도서관 실감형 체험관
‘고문헌 실감누리’ 개관



(출처: 종로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이하 종로도서관)은 실감형 체험관인 ‘고문헌 실감누리’를 1월 15일(월) 개관했다. 종로도서관이 보존하고 있는 귀중한 고문헌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고문헌 실감누리’ 체험관은 40㎡ 규모로 쌍방향 소통 장비를 구비, 도서관 자체 고문헌을 종로도서관의 문화재, 디지털 고문헌 서재, 체험형 고지도 콘텐츠로 구현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실감서재 고지도 콘텐츠도 추가로 제공한다. 앞으로도 ‘고문헌 실감누리’에서는 종로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 학교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우리 고문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화순열린도서관,
2024년 독서포인트제 운영



(출처: 화순열린도서관)

전남 화순군은 화순열린도서관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독서 목표를 달성하면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2024년 화순열린도서관 독서포인트제’를 운영한다. 지난해 6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 운영되는 독서 점수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독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매월 독서 목표(초등학생 5권, 중학생 이상 2권) 달성과 함께 화순열린도서관 누리집에 독후감을 등록하면, 매월 5,000점을 적립하고 점수를 정산하여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독서포인트제는 초등학생 이상 화순열린도서관 도서 대출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1월 9일(화)부터 화순열린도서관 회원증을 지참하고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1층 사무실을 방문하여 독서점수제 참여 신청을 마치면 독서 노트를 받을 수 있다.

포항시립도서관,
울해도 독서 문화 서비스 제공에 힘쓴다

8개의 시립도서관과 40개의 작은도서관, 9개의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는 포항시립도서관은, 지난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해 독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성과로 주목받았다. 그 결과 포항시는 지난해 9월 대구·경북 최초로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에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한 해 동안 ‘동해바다, 책을 만나다’를 주제로 지역 특색을 활용한 연간 프로그램 및 본 행사가 운영되며, 오는 3월 ‘2024 책의

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책의 도시로 성장하는 포항의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정식 개관한 어린이 특화 도서관 포은오천도서관은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지역사회의 대표 복합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AR·VR 체험, 3D 체험형 동화구연 등 다양한 형태의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독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포항시립도서관에서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도서관을 이용해 도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인 ‘책이음 서비스’가 시행됐다. 이를 통해 포항 시민이 다른 지역에 방문하거나 다른 지역민이 포항에 방문했을 때 회원증 추가 발급 없이 도서 대출이 가능하며, 150여 명이 책이음 회원으로 등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어진작은도서관,
‘U-도서관’을 설치하다



(출처: 세종시립도서관)

세종시는 최근 어진동 어진작은도서관 밖에 ‘U-도서관’을 설치했다. 컨테이너 부스형 시설로 24시간, 365일 책을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이다. U-도서관은 이번에 설치된 어진동을 포함, 종촌동과 보람동 등 복합커뮤니티센터(주민센터)가 있는 주택단지 외에도 마트나 세종고용복지센터 등과 같은 공공시설에도 설치됐다. U-도서관은 세종시 공공도서관 또는 모바일 회원증을 소지한 시민이면 누구나 1인당 2권씩 14일간 대여할 수 있다. 세종시는 높은 접근성의 도서관이 세종시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독서 장려 정책을 펼치며 다양한 독서 캠페인과 도서 및 도서관을 확충하고 있다.

영국리터러시트러스트, 이야기 청취 습관 비교 자료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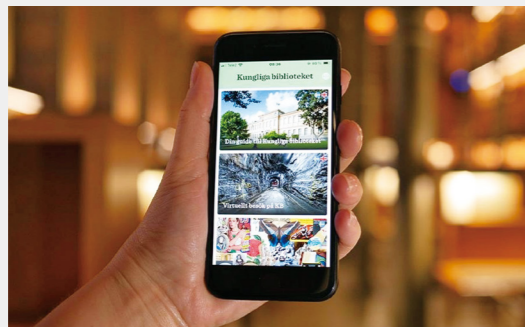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영국리터러시트러스트(National Literacy Trust, NLT) 재단은 최초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이야기 청취 습관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37.5%)에 비해 2023년에 오디오 청취를 즐기는 응답자의 비율이 39.4%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1년(43.8%)보다는 낮았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교사나 부모, 돌봄 제공자 또는 친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포함해 오디오 형태로 된 이야기 듣는 것을 즐기는지를 물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NLT는 2024년도 영국 스토리텔링 주간(National Storytelling Week)에 앞서 교사들이 오디오 듣기를 통해 아이들이 이야기를 즐기도록 도와주는 데 필요한 자료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39.4%

2023년
오디오 듣기를 즐긴다고
답한 어린이와 청소년 비율

2023년에 오디오 듣기를
즐거한다고 답한 어린이와
청소년 비율(출처: NLT)

스웨덴국립도서관, 공식 애플리케이션 출시



스웨덴국립도서관 공식 애플리케이션 출시(출처: 스웨덴국립도서관)

2023년 12월, 스웨덴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Sweden, NLS)이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이용자들은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도서관뿐만 아니라 스웨덴

국립도서관과 관련한 예술, 건축 등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스웨덴국립도서관을 설계한 건축가의 정보는 물론 악마의 성경이라 불리는 '코덱스 기가스(Codex Gigas, Djävulsbibeln)' 등의 서고 자료들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스웨덴국립도서관의 소장자료가 있는 지하서고를 가상의 360도 투어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다.

핀란드국립도서관, 핀란드 웹아카이브에서 메시지 서비스 엑스(X) 콘텐츠 수집 중단



트위터와 메시지 서비스 X의 로고(출처: X)

핀란드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Finland, NLF)은 메시지 서비스 X(구 트위터(Twitter))의 콘텐츠 수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핀란드국립도서관은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주제별 트윗(트위터의 메시지 단위)을 수집해 왔다. 특히 지난 3년 동안은 언론, 문화기관, 중앙 정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3,000여 명의 콘텐츠를 보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 X 서비스와 콘텐츠 보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은 2023년 10월부터 X의 콘텐츠 수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수집된 트윗은 핀란드 웹아카이브(Finnish Web Archive)에 보관되어 있으며, 열람을 원하는 연구자 및 핀란드국립도서관의 이용자들에게 제공된다.



국외 도서관 소식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월드라이브러리
(librarian.nl.go.kr)에서 확인하세요.

남의 책을 읽는 것에
시간을 보내라.
남이 고생한 것에 의해서
자신을 쉽게 개선할 수 있다.
- 셴라테스